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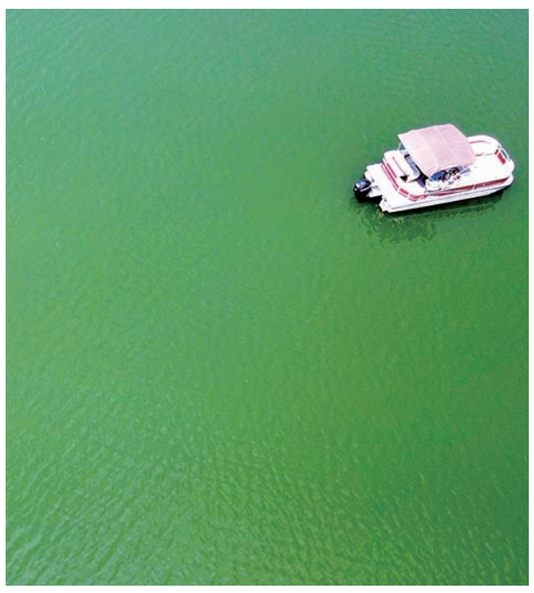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제1673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최악 가뭄…공업용수까지 고갈된다





올봄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로 피해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22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 간척농지에서 농민이 말라 죽은 모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녹조로 물이 초록색으로 변한 경기도 용인시 신갈저수지에 배 한 척이 떠 있다. 연합뉴스

목타는 대한민국

올 강수량 평년 69%에 불과
이달 하순 '마른장마' 가능성
과일·야채 식탁물가도 '들썩'
가뭄 장기화 대비 추가 대책

봄 가뭄이 여름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긴 가뭄에 농산물 피해가 커져 식탁물가가 치솟고,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가뭄 피해가 전 산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긴급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마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천수답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23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봄 시작된 가뭄이 해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로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의 6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 시즌에 돌입하지만, 비구름이 주로 남해안에 머물면서 생기는, 이른바 '마른장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뭄 탓에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바다를 메워 논을 만든 간척지의 경우는 염해 피해가 크다.

전국 쌀 생산량의 1%를 차지하는 서산(A·B 지구)과 태안(이원간척지) 등 총 1만253ha의 간척지 논에서는 농작물 최소 50% 이상이 염해 피해로 말라 죽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로 쓰는 담수호의 염도가 정상치의 2~12배 수준까지 뛰면서 생긴 현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과일과 야채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올해 평균 과일 소매가격(상품 기준)은 지난해보다 수박이 1통에 1만9689원에서 2만1075원으로 올랐고, 참외도 10개에 1만6766원에서 1만8330원으로 뛰었다. 채소류인 양배추는 1포기에 3918원에서 4044원으로, 양파는 1kg에 1944원에서 2229원으로 상승했다.

공업용수가 부족해 비상이 걸린 곳도 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에 하루 평균 필요한 공업용수는 20만t이다. 대산단지에 하루 필요한 공업용수 절반을 공급하던 대호호의 저수율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곳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모아둔 인공연못(Pond)까지 아껴 쓸 정도로 형편이 나쁘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가뭄이 지속하면서 공업용수에 쓸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은 물을 최대한 아끼고 저수시설의 물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할 땐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추가 가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뭄 대응 상황과 추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토대로 정부는 가뭄 발생 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땜질식 대책보다는 근본적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창균·이정필 기자 yangck@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시민단체 "기본료 폐지 물거품" 반발
이통사 "경영침해…행정소송 불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정책을 앞세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싸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등의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야당, 시민단체 등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망되고 있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불발된 것에 대해 공약 후퇴라면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시장 이해도가 부족해 미래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할인율 인상 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폭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약정 요금제보다 공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시 지원금을 추가로 올려 가입자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불발로 한숨 돌린 이통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는 빼고 이통사에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통사들은 현재 대형 로펌의 자문을 구해 조만간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中 금융시스템 붕괴할라" 중국당국 '덜덜'

자산버블 팽창·그림자 금융 확대로
세계2위 대국 경제위기 불안감 고조
안방보험 등 해외 M&A 리스크 단속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 붕괴 불안에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리스크와 관련해 긴급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공격적으로 해외 인수·합병(M&A)을 벌였던 민간기업에 대출한 은행들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관련기사 2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은감회 관리들은 6일 은행 관계자들과 긴급 전화회의를 가졌다.

은감회는 은행들에 조사 대상 그룹에 대한 대출과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제공한 보증에 관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은감회는 이들 기업의 레버리지 상황과 위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고받은 뒤 은행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줄여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최대 부호인 왕젠린이 이끄는 다롄완다그룹과 최근 우샤오후이 회장이 감금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방보험그룹, '중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궈광창 회장이 이끄는 푸싱인터내셔널, 하이난항공그룹(하이항그룹·HNA),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AC밀란을 인수한 로소네리 등 총 5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차입을 통해 해외 자산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명성을 떨쳤지만 지난해 위안화 약세를 초래하고 외환보유액 감소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자산 버블 팽창과 그림자 금융 확대로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그만큼 당국이 재정적 규율 없이 방만하게 경영하는 기업들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은감회 조사 지시 소식에 이날 관련 기업 주가는 일제히 폭락했다. 완다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로 선전증시 상장사인 완다필름은 일일 변동폭 한계인 10%까지 폭락한 끝에 결국 거래가 중단됐다. 홍콩에 상장된 하이항그룹 자회사 HNA홀딩그룹 주가는 6.1%, 푸싱인터내셔널이 5.8% 각각 급락했다. 안방보험과 로소네리는 비상장사다.

이들 기업 회사채 금리도 폭등(가격은 하락)했다. 푸싱이 3월 발행한 5년물 14억 달러 회사채 금리는 전날의 4.76%에서 5.72%로, 완다부동산이 발행한 2024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5.08%에서 6.44%로 각각 뛰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文대통령 동행 訪美경제인단 52명 확정

트럼프에 '투자 선물 보따리' 푼다

정의선 부회장·최태원 회장 등…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히 할 듯
중소·중견기업이 3분의 2 차지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다. 이번 경제인단은 대미(對美) 투자·교역과 미국 사업 계획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회사들로, 각종 정치적 이슈가 산적해 있는 한미 대화에서 '민간경제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경제인 명단 2면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청와대의 승인을 거쳐 52명의 방미 경제인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20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미 투자·교역 △미국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 △첨단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협회나 단체가 아닌 기업 위주로 경제인단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4대 그룹의 미국행이 결정됐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로 삼성의 대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경제인단에 합류한다. 현대차, SK, LG에선 각각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본준 부회장이 미국행을 결정하며 삼성을 제외하고는 오너가가 참석한다. 또한 허창수 GS 회장, 신현우 한화(한화테크윈) 대표이사,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도 참석한다.

청와대가 막판까지 명단을 조정하면서 포스코, KT, 롯데그룹 등 경제인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들이 명단에서 빠졌다.

포스코와 KT의 경우 대한상의 심의 단계에서 미국 관련 실적이 다소 부족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 고용에 기여한 한국GM, 한국3M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기업들도 참가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23개사, 공기업 2개사다. 대기업 위주였던 기존 경제인단과 달리 첨단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되며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방미 경제인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IT·정보보안(8), 에너지·환경(7), 의료·바이오(5), 항공·우주(1), 플랜트·엔지니어링(1), 로봇시스템(1), 신소재(1) 등 첨단분야의 기업들과 기계장비·자재(7), 자동차·부품(6), 전기·전자(5), 소비재·유통(3) 등이다.

재계에선 이번 경제인단이 대미 투자·교역과 투자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꾸린 만큼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 꾸러미'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과 LG 등은 현지에 가전공장을 짓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대차 역시 3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경제인단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개최로 열리는 '한·미 비즈니스 서밋(Korea-US Business Summit)'에 참가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양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제조, 서비스업을 비롯해 IT, 의료,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슈 & 인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15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 먹거리가 되겠지만 중견·중소건설사를 이끌 메리트가 있어야…." 취임한 지 6개월 된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일성이다. 심 회장은 "민·관이 협력해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온 심 회장은 "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보증과 건설비 등 지원을 병행해야 중견·중소 주택업체 참여가 늘어 뉴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회장 ▶9



송호근 교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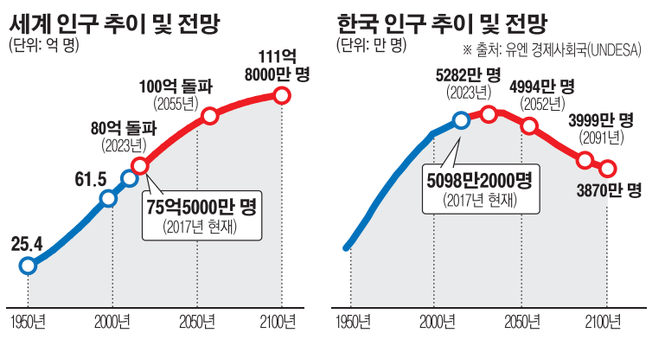


비즈 엔터 - 인터뷰 ▶16
영화 '박열' 이제훈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세계 인구 2023년 '80억'… 한국은 2034년부터 내리막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 명, 2050년에는 98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6000만 명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4억1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인도(13억3900만 명), 미국(3억2400만 명), 인도네시아(2억6000만 명), 브라질(2억900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5098만2000명으로 세계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27개국 중 가장 마지막 순위였다. 유엔은 매년 세계 인구가 약 8300만 명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은 인도의 인구가 2024년 14억3800만 명을 기록해 중국(14억3600만 명)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의 인구는 2034년 528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100년에는 인구가 3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빚 배탈' 난 중국…'M&A 식탐'에 칼 댄다

中 정부, 대기업 해외투자 리스크 긴급조사

완다그룹·HNA 등 5곳 조사 대상
막대한 차입 경영으로 中 금융 위협
당국 직·간접 경고 무시하다 된서리
올해 글로벌 M&A시장 냉각될 듯

중국 부채 폭탄의 뇌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운데 마침내 당국이 칼자루를 뽑았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시중은행들에 민간 대기업 5곳에 제공한 대출과 보증 관련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22일(현지시간) 뒤늦게 밝혀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다롄완다그룹과 푸싱인터내셔널, 하이난항공그룹(HNA), 안방보험, 로소네리 등은 최근 수년간 전례가 없는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M&A) 열풍을 주도했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부터 유명 리조트 클럽메드,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 독일 도이체방크 지분 10%, 우리나라의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이들 중 로소네리를 제외한 4곳이 실시한 해외 M&A 규모는 지난 5년간 무려 56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했다. 이런 광풍에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22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게 됐다. 로소네리는 4월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AC밀란을 8억 달러에 인수해 화제를 모은 기업이다. 그러나 표적이 된 이들 5개 기업은 막대한 차입과 불투명한 경영을 통한 사세 확장에만 주력하고 중국의 금융 안정성을 뒤흔들면서 당국의 여러 차례 직간접적인 경고를 무시한 끝에 결국 분노를 사게 됐다는 평가다.

은감회가 은행들에 지시한 시점이 6일이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로 정부·공산당과의 '관시(關係)'를 과시했던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이 당국에 구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 이는 중국 정부가 이미 이달 초부터 기업들에 철퇴를 내릴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칼자루를 뽑은 배경에는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부채 급증세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7%로, 신흥국 평균인 184%를 훨씬 웃돌았다. 2007년에는 비율이 15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0년 만에 부채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중국 금융당국 조사 대상이 된 기업 5곳의 주요 M&A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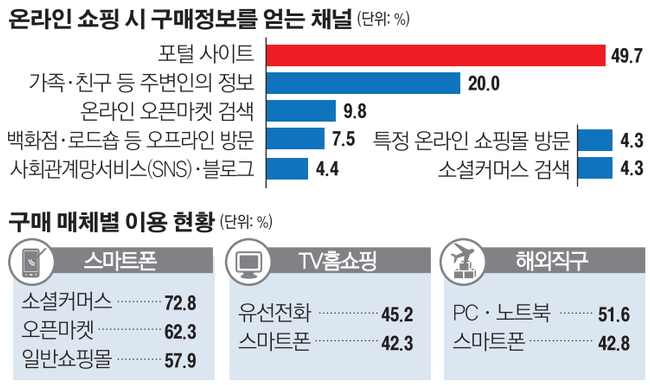
기업명	연도	인수대상	규모
다롄완다	2012년	AMC엔터테인먼트	26
	2014년	매직리프	5
	2016년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35
	2017년	노르딕시네마	6
푸싱	2014년	시노펙마케팅	174
	2017년	폴리어스골드	9
안방보험	2014년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	20
	2016년	스트래티직호텔&리조트	55
	2017년	더블트리 호텔	4
HNA	2015년	스위스포트인터내셔널	28
	2016년	힐튼월드와이드	65
	2017년	두프리	14
로소네리	2017년	AC밀란	8

더 나아가 중국은 올가을 5년마다 치러지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회(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제외한 당 지도부 거의 대부분이 교체될 예정이기에 정부는 올해 정책 최우선순위가 정치와 경제 안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도 멈추지 않는 기업들의 흥청망청 M&A 열기에 제동을 걸 필요를 느낀 것이다.

예를 들어 안방보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가문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다 철회해 현지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당국의 비위를 거슬리기에 충분했다. 푸싱의 궈광창 회장은 우샤오후위에 앞서 이미 2015년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사라진 적이 있는 등 이미 미운 털이 한 번 박힌 상태다. AC밀란을 사들인 로소네리도 자금 출처와 기업 지배구조 등이 불투명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올해 글로벌 M&A 시장도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6.1% 급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온라인쇼핑족 2명 중 1명은 포털에서 사전 정보수집

온라인 쇼핑 이용자 두 명 중 한 명은 물품을 사기 전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최지혜 연구원의 '온라인 쇼핑 이용 현황과 구매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쇼핑 유경험자의 49.7%는 구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했다.

다음으로는 가족·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20%),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9.8%), 백화점·로드숍 등 오프라인 방문(7.5%), 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4.4%), 특정 온라인 쇼핑몰 방문(4.3%), 소셜커머스 검색(4.3%) 등의 순이었다.

최 연구원은 온라인 쇼핑에서 포털 검색 의존 비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들이 자체 쇼핑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단일 플랫폼에서 가능해져 구매 트렌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2분기 추정치〉

'13조 영업익' 삼성전자 내달 '성과급 잔치'

"반도체 부활 성공" 목표달성장려금 예고
역대 최대실적에 '지급비율 100%' 기대

삼성전자는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다음 달 초 지급한다.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신기록을 쓰고 있는 반도체 부문과 부활에 성공한 무선사업부는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첫 주 임직원들에게 상반기 성과급(TAI)을 지급할 예정이다. TAI는 상·하반기에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사업부문 및 사업부 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성과급 산정은 각 사업부문 및 사업부 실적을 토대로 A~D등급으로 분류한다. A등급 50%, B등급 25%, C등급 12.5%, D등급은 0%의 성과급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사업부문이 A등급을 받고 소속 사업부가 B등급을 받았다면 월 기본급 기준 75%(50%+25%)의 성과급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사업부 대부분이 100%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와 시스템 LSI사업부 등 반도체 쪽은 100%가 확실시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올 1분기에 사상 첫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열었고, 2분기에는 7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부문 무선사업부 직원들 역시 100% 성과급이 기대된다. 올 1분기에 신형 전략 스마트폰 없이 2조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선방했고, 2분기는 '갤럭시S8'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갤럭시S8은 출시 3주 만에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를 넘기며 전작 갤럭시S7보다 앞선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무선사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100%의 성과급을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탓에 62.5%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밖에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선전한 CE부문은 생활가전과 영상디스플레이 등 사업부별로 75~100%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에 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관측된다. 송영록 기자 syr@

방미 경제인단 명단

〈주관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대기업〉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준 부회장 △GS 허창수 회장 △한화(한화테크윈) 신현우 대표이사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CJ 손경식 회장 △LS 구자열 회장

〈중견기업〉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 △디케이주식회사 김보곤 대표이사 △삼강엠앤티 송무석 회장 △삼익티에이치케이 진영환 회장 △신성이엔지 이완근 회장 △신영 강호갑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 △제우스 이종우 대표이사 △크루셜텍 안건준 회장 △티씨씨동양 손봉락 회장 △풍산그룹 류진 회장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이사 △한양 이기승 회장

〈중소기업〉 △녹십자셀 이득주 대표이사 △뉴트리바이오텍 권진혁 대표이사 △달리웍스 이순호 대표 △대화연료펌프 유동옥 회장 △데이터스트림즈 이영상 대표이사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회장 △부강테크 김동우 대표이사 △블루버드 이장원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이사 △산하 박성택 회장 △세원셀론텍 장정호 대표이사 △스탠다드그래핀 이정훈 대표 △신한건설 유주현 회장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엑시콘 최명배 회장 △오토젠 이연배 회장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일지테크 구준모 대표이사 △전진켐텍 신명진 대표이사 △지엠티 윤여두 대표이사 △케이티에이치아시아 김태희 대표이사 △한용산업 이재한 대표이사 △효림산업 한무경 회장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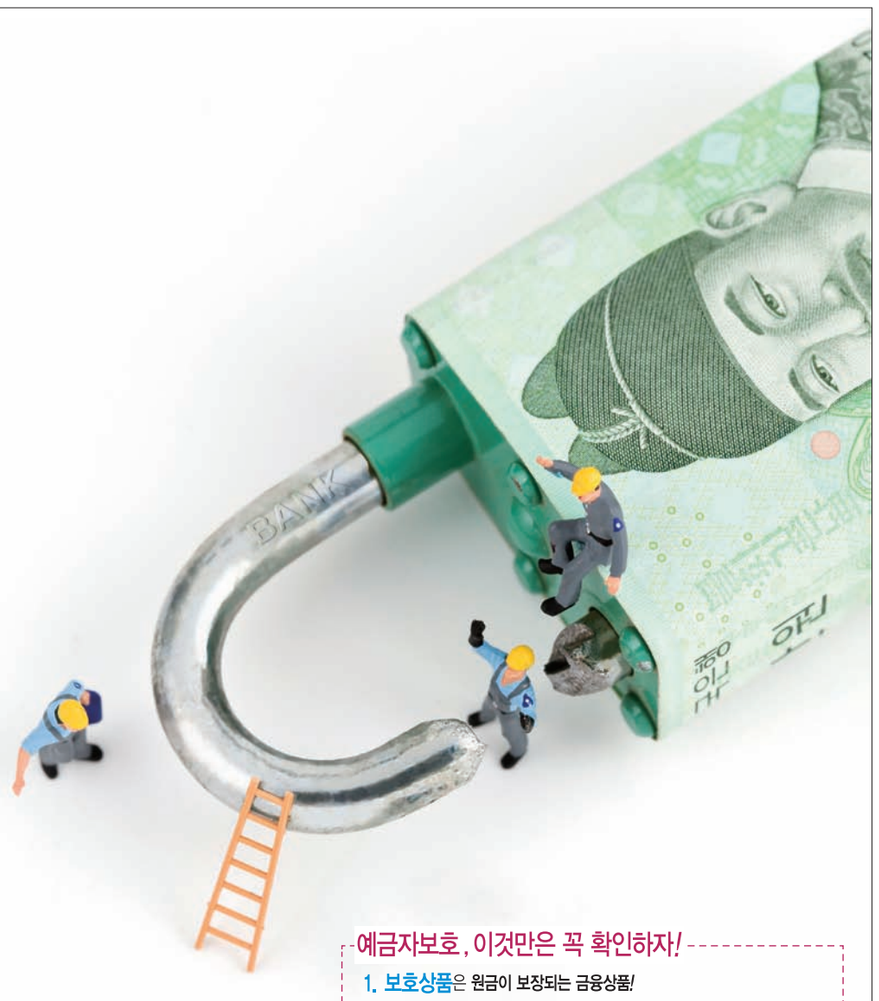
〈미국계 한국기업〉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 △한국쓰리엠 아밋 라로야 사장

금융에 믿음을 더하는
KDIC 예금보험공사

당신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지킵니다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예금!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있어 언제나 안심입니다.

'16.6.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이제는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하신 후 가입하세요.
통장,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된 예금보호 로고를 통해서도 예금보호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보호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2.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
3. 보호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종금사!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호湖 저수율 0%… 물 10만t씩 받아쓰던 대산공단 '패닉'

〈충남 당진〉 〈하루 평균〉

최악의 가뭄, 식탁물가 이어 공업용수까지 '비상'

올들어 누적강수량 189.1㎜ 사상 최저… 물 부족에 농작물 생육저조
지난달 과실물가지수 '118.15' 4년만에 최고, 양파값 작년보다 50% ↑
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 등 입주 3대 石化단지 대산공단 '제한급수' 위기



가뭄 현황

	현재	비고
누적강수량	189.1㎜	1973년 이후 최저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42%	평년 대비 17%p 낮아
보령댐저수율	8.8%	1998년 이해 최저
과실물가지수	118.15	4년 만에 최고
대호호저수율	0%	연평균 저수율 66%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피해가 확산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공업용수 부족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가뭄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내달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는 비상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누적강수량은 189.1㎜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누적강수량이 가장 적다. 평년에 견주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는 끝났지만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 지역은 물 부족으로 인한 마름 현상으로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보령댐 저수율(8.8%)은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평년 저수율은 38%다. 보령댐은 3월 25일 저수율이 14%로 떨어지면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줄이는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으로 식탁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과일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물가지수가 118.15를 기록, 2013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과실물가지수는 사과·배·포도·딸기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 15종의 물가를 바탕으로 계산된 지수다.

과실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96.79로 낮았으나 올해 가뭄으로 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줄면서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일 기준 수박 한 통 평균가는 1만 685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올랐고, 사과는 전년보다 7% 뛰었다.

양파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50%나 높아졌고 반찬 단골 메뉴인 당근과 상추, 호박은 물론 여름 과일의 대표격인 수박 가격도 10% 이상 올랐다. 고랭지배추 역시 가뭄에 최근 폭염 피해가 더해지면서 향후 생산 급감에 따른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 현장도 가뭄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대산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용수 부족으로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KCC 등이 입주한 대산산업단지는 하루에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한다. 용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대호호에서 10만 톤, 아산호에서 10만 톤을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나 가뭄으로 유효 저수량이 4646만 톤인 대호호의 저수율이 22일 기준 0%로 떨어졌다. 1985년 준공 이후 처음이다. 대호호의 연평균 저수율은 66%다. 인근에 있는 저수용량 8400만 톤인 삽교호도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3.3%로 떨어졌다.

울산·여수 지역 산업단지와 비교해 대산산업단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간척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용수 공급에 취약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유·화학 업종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한다. 물을 끓여서 나오는 스팀의 열을 활용해 각종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화학제품과 물질을 식히는 과정에도 많은 물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하루에 4000톤가량의 공업용수를 쓴다. 가뭄이 지속되면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7~8월 피서철 관광지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에 가뭄예산 추가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물가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양파값이 계속 오르면 비축해둔 6만3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랭지배추 가격 상승에 대비해 8000만 톤 규모의 봄 배추도 비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 및 추가대책'을 통해 특별교부세 265억 원과 가뭄대책비 1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통신비 인하' 얼마나 혜택받나

통신비 인하 주요 방안 및 예상 효과

인하 방안	예상 효과
취약계층 기본료 1만10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193만 명) 및 저소득층(136만 명) 등 총 330만 명 통신 기본료 감면, 주거 및 노동취약계층 포함
요금할인율 20% → 25% 상향 조정	요금제 평균(4만 원), 20% 할인 가입자 기준 月 2000원 추가 할인, 1900만 명 혜택
공공 WiFi 확대 구축	버스 5만 대, 학교 15만 곳, 1268만 명 혜택
보편 요금제 도입	3만 원대 요금 가입자 月 1만1000원 절감 효과 2570만 명 혜택

추진 일정	7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안 입법 11월 고시 개정 및 시행	9월 시행	2018년부터 단계적 추진	2017년 하반기 관련法 개정안 제출
감면 효과	약 5173억 원	약 1조원	4800억~8500억 원	최대 2조2000억 원

기초수급자 등 330만명 月 1만1000원 減免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6만원대→5만원대

국정기획위, 최대 1900만명 혜택 전망
年통신비 4.6조 절감… 내달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연간 통신비 절감효과가 최대 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5173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필요한 탓에 당장 혜택은 어렵다. 내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미래부 고시를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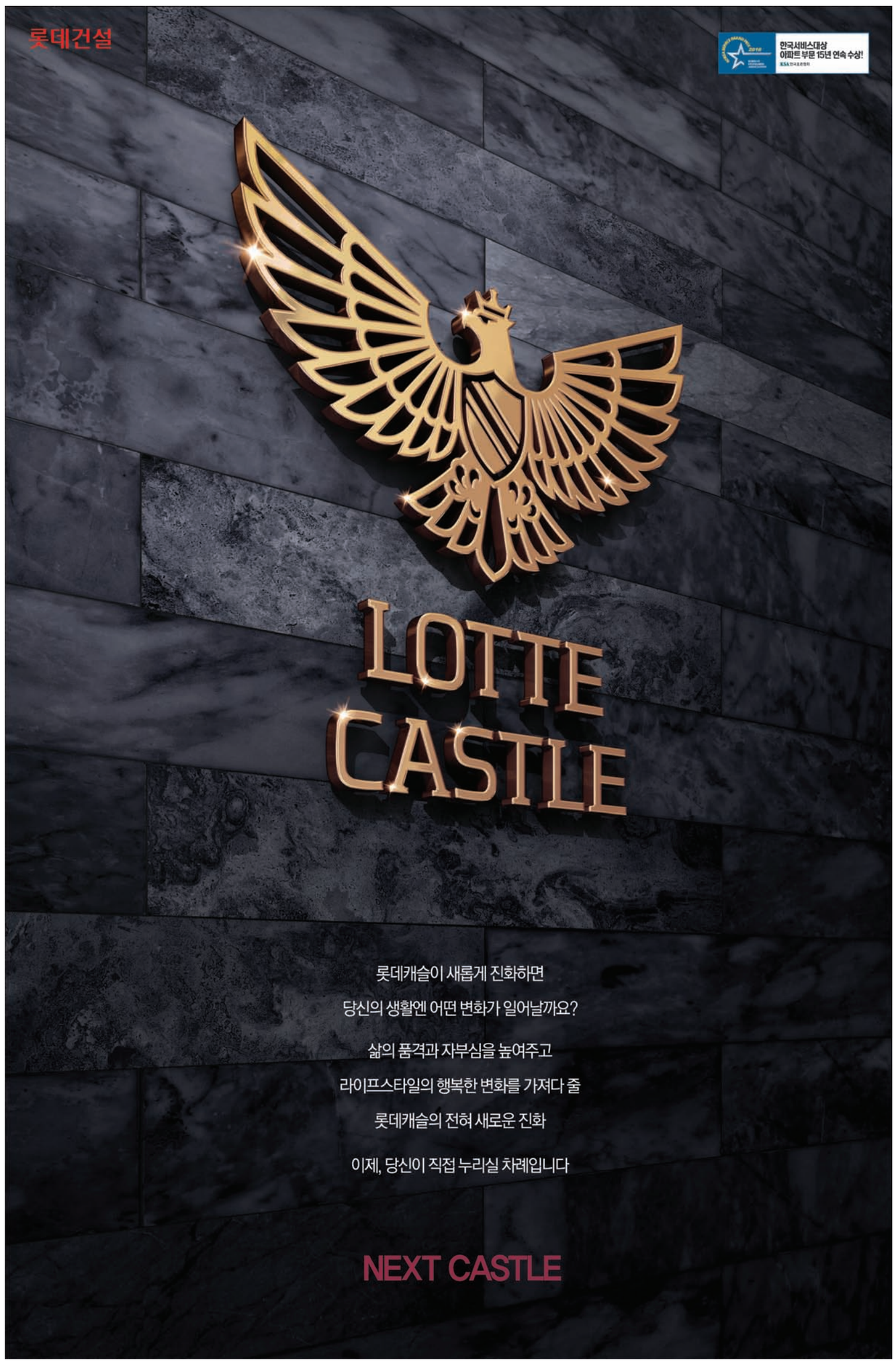
요금 할인율도 종전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온다. 6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5만 원대로 내려온다. 월 3만2000원 대의 음성 무제한 상품도 2만5000원 수준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국정위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최대 1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를 통한 감면 효과는 약 1조 원, 별도의 조치없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여기까지가 통신비 인하 단기 정책이다.

이후 대책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와이파이를 개방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이 공공 와이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작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던 2570여만 명이 대상자다. 이들은 매월 1만 원가량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월 2만 원 요금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음성과 데이터(1GB)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연간 1조~2조2000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文 "사드 올해 안 1기만"… 파장 예고

로이터 인터뷰 "당초 합의" 밝혀
"中, 北 억제 위해 더 적극 나서야
G20서 시진핑 주석 만나면
사드보복 해제 요청할 것" 등
공개 입장 표명… 美 입장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국제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애초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미국을 의식한 듯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미군 측은 대선 바로 며칠 전인 4월 말에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2기를 성주 부지에 배치했다. 특히 3월 초 사드 발사대 2기를 반입하면서 4기를 한국에 추가로 반입했는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 말한 바 있다.

이번 문 대통령 발언의 진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논란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외교 관례상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음 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보복 조치들을 해제'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드 보복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그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측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곳곳에 '인사 지뢰'… 고심 깊어지는 靑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
野, 음주운전 등 의혹 '부적격' 지목
탁현민 靑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여성 비하 발언' 與까지 비판 나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날 선 검증의 칼날 위에 섰다. 계속된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 중 추가 낙마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으면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 등 6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면 확정된다.

가까스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청문회는 치를 수 있게 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지목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인사문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 고액 자문료, 위장전입, 납품 비리 등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친북 논란(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조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임금체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이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 3당에서 다 거부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민주적 정당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한 명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여성 비하 발언이 또 드러나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야권 여성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한 가운데 일부 여당 여성 의원들도 비판에 합류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내심 청와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이런 문제가 부담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 본인이 어떤 결론을 낼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與野, 추경·재정법 연계도 이견

한국당 "동시 처리 가능하다"
민주는 "先 추경 後 법 개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으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법 개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추경 처리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꽉 막힌 추경 정국의 돌파구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 따로따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법 개정 요구는 시간 끌기"라며 "시급성이 있는 추경을 법 개정 논의와 함께하다간 타이밍을 놓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추경은 경각에 달린 민생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처리하되, 향후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추경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추경 심의 착수의 한 조건으로 언급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 이후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재정법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는 추경은 안 하든지 아니면 법 요건을 완화해 이런 시비를 없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당에선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현재의 여권이 정부안을 내면서 '국민생활 안정'을 대규모 자연재해 등과 함께 추경의 한 요건으로 제시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보수야당이 이번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세리머니' 격으로 통과시켜 주면서 향후 법 개정 약속 등을 받아내 반대 철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19대 大選 선거법 위반 고발 300건

허위사실공표 75건 최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등 선거 질서 위반 행위로 인한 고발 등의 조치 사례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19대 대통령선거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치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330건이다. 조치별로는 △고발 99건 △수사의뢰 16건 △이첩 9건 △경고 20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가 전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 관련 34건, 기부행위 등 24건, 시설물 관련 21건, 공무원 선거관여 21건, 집회·모임 이용 9건, 여론조사 관련 9건, 문자메시지 이용 8건, 비방·흑색선전 5건, 유사기관·사조직 3건 등의 순이다. 특히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 비하·모욕이 80건, 매수 및 기부행위 24건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건 △부산 31건 △대구 17건 △인천 16건 △광주 14건 △대전 10건 △울산 7건 △경기 44건 △강원 16건 △충북 14건 △충남 28건 △전북 9건 △전남 12건 △경북 17건 △경남 21건 △제주 5건이다. 인구수에 비례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선거질서 위반행위는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7건(현수막 훼손 1·투표지 훼손 13·투표지 촬영 28)이 고발된 상태다.

다만 총 509건이었던 18대 대선 전체 조치보다 179건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궐위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짧았다"며 "보통 대선 경선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조치 건수를 집계하는데, 탄핵 뒤 두 달 만에 조기 선거를 치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천연가스 자동차는 하늘색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 보급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NG 버스 •CNG 택시 •LNG 야드트렉터 •LNG 트럭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

‘무역적자’ 트집 잡는 美 대응논리 찾는 韓정부

美, 만성 적자 해결 위해 中·獨·日·韓 등 16개국 분석보고서 이달 말 발표

부정적 기술 가능성에 8개 관계부처 ‘제8차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결과 발표가 6월 말 예정된 가운데 23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참석하에 ‘제8차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을 주재했다.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통상협의회’의 사전적 협의체 성격으로, 수입 규제 등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애로와 현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는 6월 말 발표(다음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3월 31일 내렸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관행, 법률, 규제, 시장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상대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분석 대상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성 등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중국(3470억 달러), EU(3147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나쁘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 차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발표 예정으로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그간의 성과를 적극 설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무역협회 ‘할랄 수출상담 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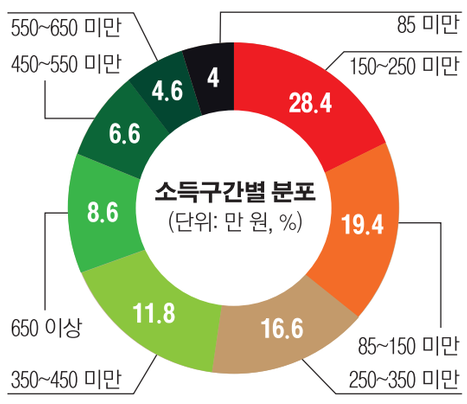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할랄 수출상담 센터’ 개소식에서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할랄 수출상담 센터는 중소 무역업계의 할랄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시장 정보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전현표 (주)대덕랩코 대표,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최성철 한국할랄수출협회 회장, 장건 할랄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남녀 간 154만원…‘소득 격차’의 나라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소득 250만 원 이하

성별따라 1.7배, 대·중기 간 1.8배 벌어져



한국의 임금근로자 소득분포가 처음 공개되면서 각 분류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남녀 성별은 1.7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8배, 업종별로는 3.3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23일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2015년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소득 순으로 나열 시 중앙에 위치한 중위소득은 2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약 1500만 개 일자리의 세전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소수의 고소득층이 평균치를 크게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위소득을 현실적인 평균값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일용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취약근로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등은 제외됐다. 이들의 일자리 약 900만 개를 포함할 경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평균소득은 390만 원, 중위소득은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자의 평균소득은 236만 원, 중위소득은 179만 원으로 조사됐다. 약 1.7배 차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154만 원, 121만 원 적은 수치다.

사업체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아졌다.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238만 원, 50~300인 미만 312만 원, 300인 이상 432만 원으로 올라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는 1.8배를 넘어섰다.

산업대분류별 평균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이 57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46만 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27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73만 원)은 가장 낮았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99만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8만 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38만 원) 순으로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득 격차는 3.3배를 넘는다.

이정필 기자 roman@

“선박 배출가스 줄이자” 4개 항만공사 맞손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 저감 목표

대기 선박에 육상전원 공급 논의

선박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 4개 항만공사가 손을 잡았다.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22일 인천항만공사에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활성화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에 육상전원을 공급해 시동을 끄게 하는 시설이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정박 중에도 냉동·공조 시스템을 가동하는 탓에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한다. 선박 연료인 벙커C유에 함유된 대기오염 물질 황산화물은 경유에 포함된 것보다 3500배가량 많다. 또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경우 미세먼지(PM10)가 연평균 55㎍/㎥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항 등 외국 선진 항만에서는 선박 유류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AMP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4개 항만공사는 AMP 설치 확대를 위해 기술 표준화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마련, 초기 투자비 확보, 부두 운영사 운영비 증가 등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항만공사들은 항만구역 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항만전용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 측정소는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2(황산화물), NO2(질소산화물), O3(오존), CO(일산화탄소) 등 6개 주요 오염물질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 항만구역 내 대기오염 수준을 정확히 측정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을 찾아 실질적인 대기 오염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공정위에 조사자료 안 내면 형사처벌·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수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내용이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은 10월 19일이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형벌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고쳤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 원 초과는 2000분의 2가 부과율로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내 통장을 달러로 운영하는
새로운 투자방법!

입출금이 자유로운
초이스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초이스외화예금 (USD) 특별금리 이벤트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연 1.0% (세전)
(2017.6.21 현재)

이벤트 기간 2017년 3월 22일 ~ 2017년 12월 29일
이벤트 대상 계좌 신규월의 전월 기준 SC제일은행에 외화예금(USD 통화에 한함)이 없거나 1,000불 이하 보유고객 중, 미화 1,000불 이상을 원화에서 환전하여 신규하는 고객
이벤트 내용 이벤트 대상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초이스외화예금 신규 시 신규일로부터 6개월 간 특별 금리 연 1.0%(세전)를 제공
(2017. 6. 21 현재 초이스외화예금 약정금리 : 연 0.1%(세전))

※ 단, 첫 신규 금액의 경우 반드시 환전 거래를 통해 입금된 금액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 (환전 거래를 동반하지 않고 외화 현찰 및 외화 대체 거래로 신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 금리 적용 하지 않음) / 우대 금리 제공 기간은 신규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응당일의 전일까지 제공되며, 이후부터는 초이스외화예금의 약정금리 적용 / 신규 후, 모바일을 통한 외화 사고 팔기 거래 시, 90% 우대환율 적용

문의전화 1588-1599

Here for good
sc.co.kr

| 본 이벤트는 은행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 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의 신규, 해지할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SC제일은행 홈페이지(www.sc.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C 준법감시인 심사필 기136-20170322~20171229

김상조號 공정위, 예고대로…

첫 정책 행보는 '갑질 근절'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안

적발 땐 과징금 2배 인상
현행 30~70%→60~140%
감경률 인하는 까다롭게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甲)질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나온 정책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판매 촉진(판촉)이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한 대형마트에 부과된 12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 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 등의 감경률 인하는 더 까다로워졌다. 현재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땐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땐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진시정(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률은 30~50%에서 20~30%으로 낮추고, 조사협조(행위사실 인정하고 적극 협조)도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서 기업의 자본잠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자본잠식이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의 모호한 표현이 쓰여지고, 과징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받으면 일률적으로 50% 이내로 감경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단순 자본잠식은 30% 이내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50% 초과 감경으로 구분했다. 또한 법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1953년 이 사진 속 아이들 지금은…

수원시, 행궁동 배경 사진 주인공 찾기…현재 70~80대



경기도 수원시와 팔달구 행궁동 주민들이 1953년 행궁동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주인공을 찾는 '응답하라 행궁동 1953 프로젝트'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로버트 리 월워스가 찍어 수원화성박물관에 기증한 이 사진에는 소년 3명과 소녀 1명, 얼굴을 돌린 큰 소녀가 수원화성의 성곽 위에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속 주인공들이 생존해 있다면 현재 70~80세 연령대일 것으로 '응답하라 행궁동 1953 프로젝트' 운영팀은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앞길이 열린다

김신조 사건 후 50년만에…26일부터 24시간 개방

평시 검문 않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사진 촬영도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사건 이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 만에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평시 검문도 사라진다. 야간통행 제한도 풀려 경복궁 둘레길 야간 산책도 가능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해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이 개선된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해 왔다.

또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 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청와대 외곽 검문소의 육중한 바리케이드도 사라지는 대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테러 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 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춘추관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한적으로 주간에만 개방됐다.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관광객들의 사진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오후 8시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열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최태원, 朴 독대 때 "출연금 확인·동생 가석방 부탁" 청탁 정황 인정

이재용 '뇌물 재판'에도 변수 될까

최 회장, 어제 朴 재판 증인 출석
"청탁 없었다" 이 부회장과 대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정 증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관련 재판에 변수로 등장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 독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의 현안과 관련한 '청탁 정황'을 인정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지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사뭇 대조적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재벌 총수가 직접 나와 독대 상황을 설명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문제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갱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승인 문제 등 그룹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동생 최 부회장의 가석방 요청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고 완곡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의 증언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뇌물공여 관련 재판의 공소사실을 강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대 배석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반면, 이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증언이 재판부에게 구체적 정황만으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정황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 최 회장의 증언은 '청탁→뇌물공여→특혜'의 고리를 입증해야 할 특검에게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우 기자 acw@

'오픈마켓 가격제한' 필립스전자 과징금 15억

최저가 정해 그 이하로 못 팔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자사 제품의 최저가격을 정한 뒤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한 필립스코리아가 15억 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유통채널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제재여서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필립스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15억5600만 원을 확정했다.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은 오픈마켓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제품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2심 역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돼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규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하게 판매됨에 따라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에서의 판매금지는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저해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THE ASIAN BANKER
Best Trade Finance Bank in South Korea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17
Asian Banker誌 선정 6년 연속
“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 ”



COOL하게 떠나자!
푸짐한 환전 혜택으로!

KB쿨썸머 홀리데이 환전·송금 페스티벌

이벤트기간 :
2017. 6. 1(목) ~ 2017. 9. 30(토)

1 환율 우대에 놀라고!

Liiv(리브)와 함께하면 누구든 쉽고, 빠르게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
주요통화 90%: USD, JPY, EUR (외화기프티콘, 모바일지갑 포함)

KB서울역환전센터를 방문하면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
주요통화 90%: USD, JPY, EUR

2 혜택에 반하다!

무료로 여행자보험 가입하고 든든하게 떠나자!
KB영업점에서 건당 미화 500불 상당액이상(포지션금액 기준)
외화현찰을 사시는 개인고객 중
여행자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서울역환전센터 제외)

KB에서 환전하면 제휴사 할인혜택 까지!
서울역 〈–〉 인천공항 공항철도 할인 (8,000원 –〉 6,000원)
해외 로밍 – 모비텔레콤 할인
시티, 갤러리아, SM, 엔타스, 롯데부산 면세점 할인

3 경품 행운까지!

KB영업점에서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및 해외송금한 개인고객 추첨 증정

1등 :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00만점 (1명)
2등 :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0만점 (10명)
3등 : 리브메이트 포인트리 1만점 (300명)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전체서비스 – 이벤트 – Cool Summer Holiday 환전,송금 Festival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에서 부담합니다.
※Event 2에 대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은 주민등록번호로 환전한 고객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되며, 보험사(㈜KB손해보험)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범위 :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여행기간, 대상업무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Event 3에 대한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응모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
※Event 3에 대한 리브메이트 포인트리는 리브메이트 회원 또는 KB국민카드 회원에게만 적립됩니다. 포인트리는 2017년 10월 20(금)에 일괄 적립 예정입니다.
※포인트리 적립확인 및 사용 등은 리브메이트 앱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브메이트 전용 고객센터(☎1644-9311) 또는 리브메이트 홈페이지(www.liivmat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KB스타뱅킹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카드) 매매 .양도는 불법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이 최선입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7.09.30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66호(2017.06.16)

KB 국민은행

SK증권 ELS 시세조종 '무혐의'

포스코·KT 기초자산…66억 손실
2년 만에 결론 '무리한 수사' 비판

SK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5년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한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IB업계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SK증권 직원 A씨의 ELS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자체 조사 후 2015년 3월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ELS 기초자산 매도에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검찰 통보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야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당시 매도 행위를 정상적인 헤지거래 과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ELS는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다. 두 종목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12%) 가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당시 ELS를 운용하던 A씨는 상품 만기 두 달 전이었던 2014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8000주를 매도했다. 27일 28만7000원으로 마감했던 주가가 28일에는 장중 28만1000원까지 내려갔다. SK증권의 매도 규모는 약 23억 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해당 ELS 상품의 녹인(Knock-in) 선인 28만15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

금감원은 포스코 주가가 1년간 한 차례도 해당 ELS의 발행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도성을 지적했다. 만기 이자와 원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인터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품은 약 66억 원가량 손실을 냈다.

회사 측은 포스코 주가가 하향세를 그렸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헤지거래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2015년 일명 'ELS 대란'으로 투자자 피해가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검찰은 SK증권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 금감원 역시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정다운 기자 gamja@

블록체인·AI… 은행원들 디지털 '열공'

하나, 내달 '디지털 금융' 외부강연
우리, 月 1회 '디지털 트렌드' 연수
신한, 고려대에 관련 석사과정 개설
금융권, 디지털 인재 양성 팔 걷어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디지털 인재 양성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디지털 사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내부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강좌'를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지급결제시장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

하나은행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외부 강연을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작한 데이터 분석가 양성 3차 과정을 10월 시작한다. 올 1~2월 2차 과정을 끝낸 이 프로그램은 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정보기술(IT) 도입에 따른 현업 부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은행은 2월부터 디지털금융그룹 소속 직원을 포함한 희망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디지털 트렌드 연수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스마트금융·핀테크사업 부문의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스마트 칼리지(Smart College) 과정을 신설했다.

은행과 계열사 직원들이 수강 중인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이버 교육을 마쳤다. 이어 11월까지 주말을 포함해 총 15회 집합 교육이 시행된다.

더불어 농협은행은 디지털 금융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 스마트금융부에서 부여하는 월별 과제를 수행하는 '스마트 리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올 들어 금융회사 리더들은 저마다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전문인력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4월 금융권 최초로 고려대학교와 '디지털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신한금융 직원으로 구성된 수강생들은 9월부터 4학기 동안 디지털 금융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정규과정 이수 및 최종 프로젝트 산출물 심사 후에는 공학석사 학위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인 'KB디지털 ACE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사전 입문, 기본, 실무 역량 강화, 전문가, 마스터 등 다섯 단계의 수준별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교육 과정은 신설하자마자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서 "직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카드수수료 인하, 경기침체 초래할 수도"

이건희 경기대 교수 카드학회 세미나서
수익 줄면 영화관 할인 등 혜택 사라져
수수료가 경영 핵심…정치논리 배제해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희 경기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감소해 영화관, 커피숍, 주유소 등 혜택이 없어지면 결국 이들 업체의 이익도 감소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다.

이 교수는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신용카드 수익 감소→고객혜택 축소→경기침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0.8% 적용키로 했다. 중소가맹점 기준 역시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는 1.3%로 낮췄다. 이 교수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연간수익이 약 3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사 수익구조를 보면 가맹점 수수료가 사실상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신용카드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론, 장기대출, 서비스수수료 등이 있지만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수수료가 카드사 경영의 핵심인 만큼 정치논리로 다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시장경제와 균형 맞지 않게 수수료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결국 신용카드사는 금융논리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돌아가면 과거 관치금융 문제점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 카드사들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면) 카드사들은 밴사, PG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원을 줄여야 할 수 있어 미래 혁신산업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가맹점 매출을 올려주는 획기적인 상품을 만든다면 상생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윤종규 "채용 확대 검토… 지방인재 위한 쿼터제 있다"

〈KB금융지주 회장〉

국민銀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 은행장이 22일 올해 하반기 국민은행 채용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은행이 22~23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2홀에서 개최하는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윤 회장은 "은행 부문은 하반기 채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지방대학 출신 채용률이 낮아 취임 후 별도의 쿼터를 줬다"며 "이들의 경우 서류전형 없이 사전 면접과 채용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학력 선호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작업과 지역인재 쿼터제 운영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KB국민은행 은행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KB굿잡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연결은 지금까지 6550여 건에 이른다. 이번 박람회에는 NHN벅스, ㈜ADT캡스, ㈜하림, ㈜푸드플래닛, 청호나이스㈜ 등 250여 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신한생명 설계사들 독거노인에게 여름나기 선물

빅드림 봉사단 '웃음 바구니' 1600개 전달

신한생명은 1000여 명의 설계사가 속한 '빅드림 봉사단'이 독거어르신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국 동시에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원한 여름나기'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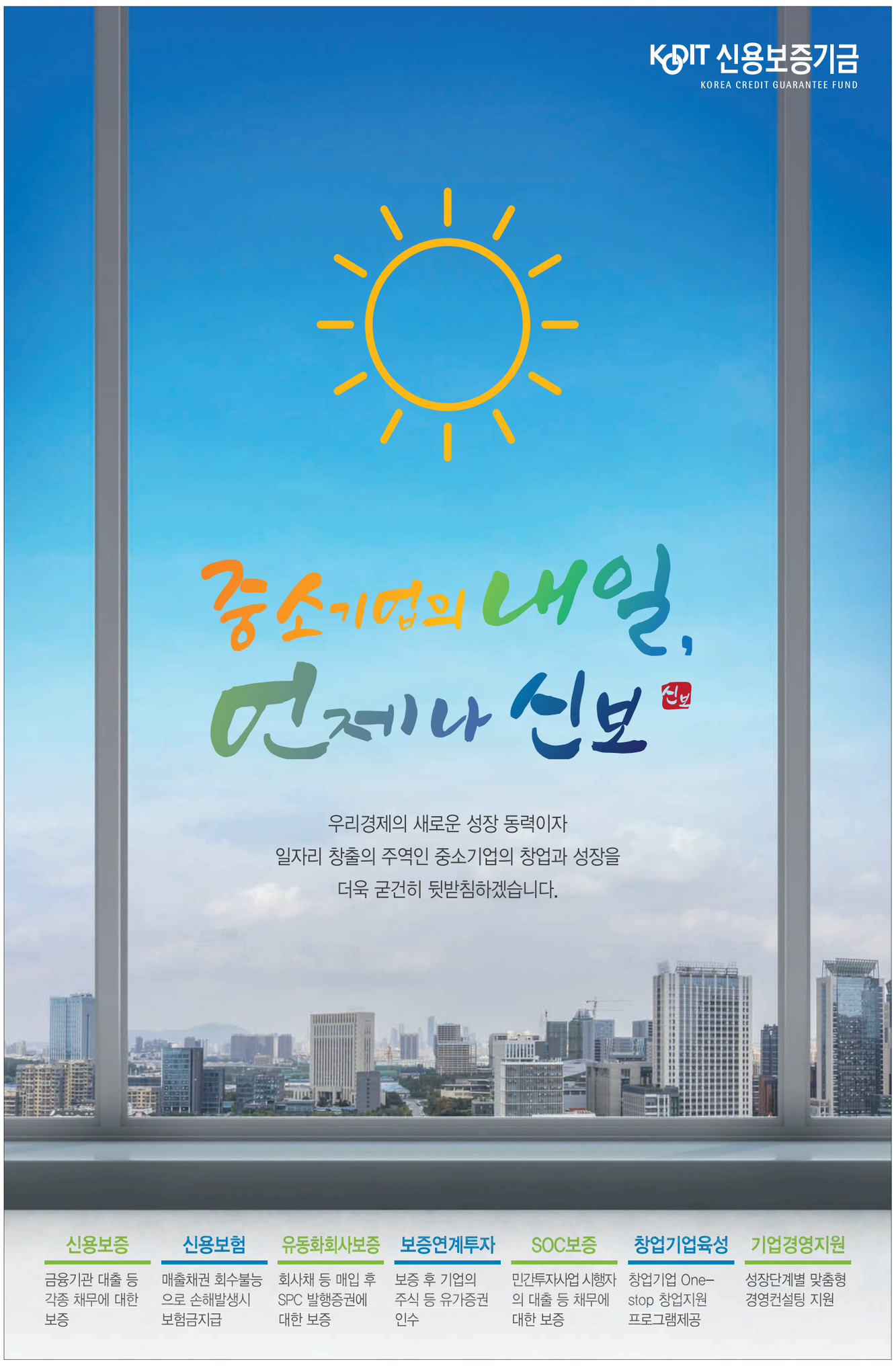
봉사단은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 7000만 원을 전달한 후 전국 47개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아 '하하하(夏) 웃음 바구니' 1600개를 제작했다. 이 바구니에는 여름용 홑이불과 삼계탕, 과일, 두유, 냉면 등을 담았다.

아울러 봉사단은 조를 이뤄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고 바구니 전달과 간단한 동작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웃음체조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빅드림 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홀로 계신 어르신의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며 "신한생명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코나 vs 스토닉… 소형 SUV '兄弟대결'

현대·기아차 글로벌시장 경쟁 치열
두 달 간격 소형 SUV 신차 출시
시기·타깃층 겹치며 경쟁 불가피
선진시장 공략…유럽서 격전 예고



현대자동차 '코나'



기아자동차 '스토닉'

'아우' 기아차가 '형님' 현대차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승용차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지르며 무서운 기세를 보이던 기아차가 올해는 품질로 '형님'의 기를 죽이는 모습이다.

이들의 경쟁은 앞으로 소형 SUV 시장으로 옮겨 갈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두 달 간격으로 소형 SUV인 '코나'와 '스토닉'을 각각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기아차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신차품질조사'에서 32개 전체 브랜드 가운데 기아차가 1위(72점)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987년 시작된 신차품질조사 31년 역사 중 일반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2년 연속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포르쉐, 제네시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모두 따돌린 성과다.

반면 현대차의 성적은 6위에 그쳤다.

차종별 평가에서도 기아차의 우위가 돋보였다. 니로, 쏘울, 쏘렌토, K3, K7 등 5개 차종이 차급별 평가에서 '최우수 품질상(Segment Winner)'을 받아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 반해, 현대차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판뿐만이 아니다. 기아차의 도약은 국내 시장에서도 눈에 띄었다. 기아차가 지난해 국내 승용차 판매량에서 47만5107대를 기록, 현대차 판매량 41만8303대를 5만6804대 앞섰다.

현대차와 기아차 간 경쟁이 이처럼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이번에는 소형 SUV 시장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두 달 간격으로 소형 SUV을 내놓게 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두 차종 간 차별화에 집중하며 경쟁 구도를 피하는 모습이지만, 시기와 타깃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코나와 스토닉 모두 국내 시장과 함께 선진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유럽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코나 신차발표회를 국내에서 진행한 직후 바로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기아차는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토닉을 국내보다 유럽에서 먼저 공개했다. 마이클 콜 기아차 유럽 판매 법인 최고운영책임자는 "스토닉은 기아차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자신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이자 기아차의 베스트셀링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부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하는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가 현대차 코나를 보고 안심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서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며 "코나와 스토닉이 쌍끌이에 나서며 소형 SUV시장을 이끌어 나갈지 경쟁 구도로 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SK그룹〉

최태원 회장 장녀, 경영수업 본격화

윤정씨 SK바이오팜 입사… 전공 살려 신약개발 성과 관리 업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 씨가 SK㈜의 자회사인 SK바이오팜에 입사하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는다.

23일 SK그룹에 따르면 최근 최 씨는 SK바이오팜 수시채용으로 이달 초 입사해 경영전략실 산하 전략팀에서 선임매니저(대리급)로 근무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신약, 의약중간체, 항생물질 연구개발 등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체다. 최 씨가 근무하는 전략팀은 SK바이오팜의 성장 전략을 짜고, 신약개발 포트폴리오와 성과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대부분의 오너 2~3세가 그룹의 주력 계열사에 입사하는 것과는 달리 최 씨는 SK바이오팜을 첫 근무지로 선택했다. 자신의 경력을 잘 살릴 수 있는 계열사로 SK바이오팜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2008년부터 미국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시카고대 뇌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미국 하버드대 물리화학 연구소와 국내 한 제약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국내에 들어와선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서 일하다 지난 1월 퇴사했다.

SK바이오팜이 SK그룹이 '5대 핵심 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사업을 대표하는 계열사란 점도 최 씨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로 해석된다. 최 회장이 '딥 체인지(근본적 변화)'를 전사적으로 주문하는 가운데 최 씨는 SK바이오팜에서 경력을 살려 일을 배우고 향후 그룹의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1남 2녀 중 차녀 최민정 중위(26)는 2014년 소위로 임관해 해군에 근무 중이며, 아들 최인근(22) 씨는 현재 미국 브라운대에 재학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D, 세계 첫 77인치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

정부-민간 컨소시엄 성과… UHD 해상도에 투과율 40%·곡률반경 80R 구현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77인치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서울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으로 이뤄진 '60인치 이상의 UHD급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 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59개월의 장기 프로젝트다.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인 LG디스플레이는 77인치, UHD(3840×2160) 해상도, 투과율 40%, 곡률반경 80R(반지름이 80㎜인 원의 휜 정도)를 구현하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60인치 이상 및 곡률반경 100㎜를 상회하는 성과로,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77인치 투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빛의 투과 또는 차광을 선택할 수 있는 55인치 투과도 가변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4년 18인치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데 이어 2015년엔 18인치 롤러블(rollable) 디스플레이, 지난해엔 55인치 투명도 40%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 전무는 "이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대면적 OLED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OLED 진영 확대와 OLED의 신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G디스플레이는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개발한 77인치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사이니지 제품을 사용자가 제스처를 통해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대성, 미생물로 新에너지 혁명 주도"

김영훈 회장 창립 70돌 콘퍼런스서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문제점 보완
30년 내 주요 에너지원 자리잡을 것"



김영훈〈사진〉 대성그룹 회장이 신(新)에너지 혁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미생물' 에너지를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30년 안에 석탄 등 화석 연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살아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김 회장은 22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 콘퍼런스 '퓨 넥서스(FEW NEXUS) 콘퍼런스&IICE 포럼'에 앞서 미디어세션을 가지고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에너지 혁명을 통해 성장한 가운데 미생물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에너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화석 연료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과 풍력은 태양과 바람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 안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기존 에너지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미생물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생물에 유기물질을 먹이면 물 속에서 전기분해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등 살아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전했다.

대성그룹은 산학협력과 대성창투를 통한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미생물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47년에는 에너지 시장이 화석연료이 3분의 1,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3분의 1, 나머지가 바이오 가스를 포함한 미생물 에너지일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HSBC와 손잡고 英 모바일결제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유력 은행과 협력을 맺으며 본격적인 모바일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에서 '삼성페이'를 출시한 데 이어 영국의 HSBC, First Direct, M&S뱅크와의 협력 관계를 발표했다.

영국은 핀테크 강국으로 꼽히지만 보수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점유율 1위 애플이 '애플페이'를 출시할 당시에도 난항을 겪었다. 당시 금융업체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론칭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영국에 지난해 말 론칭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전송기술(MST)에 대해 금융업체들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출시 시기가 올해 5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8 시리즈와 스마트워치 '기어S3'가 영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삼성페이가 영국에서 론칭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MST뿐 아니라 NFC 방식도 지원하고 범용성이 강점인 만큼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기술 활용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나라사랑 한마음"… 롯데 유통 BU '통합 사회공헌'

롯데百 등 14개 계열사 참여
바자회·할인행사 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군 장병 등 지원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나라사랑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하이마트 등 롯데그룹 내 14개 계열사로 구성된 롯데 유통 사업군(BU)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사회공헌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롯데 유통BU는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 유통 BU는 그동안 계열사들이 축적해온 사회공헌활동 노하우를 한데 모아 대규모 사회공헌활동을 주제별로 지속할 예정이다. 6월에는 나라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생명존중, 나누는 기쁨, 따뜻한 이웃 등을 주제로 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23~28일 롯데백화점 31개 점포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 대바자'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금액 일부를 유공자를 위해 기부하기 때문에 고객도 소비를 통해 호국보훈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총 5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독립유공자, 군인, 경찰 등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매장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 밖에 롯데닷컴과 롯데홈쇼핑의 온라인몰인 롯데아이몰에서도 '나라사랑 대바자'를 진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증한다.

아울러 롯데 유통 BU는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을 위한 응원 캠페인과 물품 후원 활동도 전개한다. 30일까지 전국의 롯데 유통 계열사 매장과 각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땡큐 솔져스' 포스터를 부착하고 군 장병 응원 캠페인을 벌인다. SNS에서 '생큐 솔저스(Thank you! Soldiers)' 관련 퀴즈 프로그램 정답을 댓글로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롯데 유통 BU에 소속된 11개 계열사는 전방 11개 사단을 방문해 군부대 위문품을 후원하는 활동도 한다.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사단을 방문해 총 2억 원 상당의 LED TV, 세탁기 등 군 장병 복지에 도움이 되는 가전제품을 지원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에어서울 "하늘길 넓혀 내년부터 흑자경영"

류광희 사장 "2022년까지 매년 항공기 2대 도입… 신규노선 확대"



류광희(가운데) 에어서울 대표가 캐빈승무원과 에어서울 기내에서 신규취항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어서울

류광희 에어서울 사장은 22일 "저비용 구조·경영 합리화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의 손익을 개선해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류 사장은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공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콘셉트로 항공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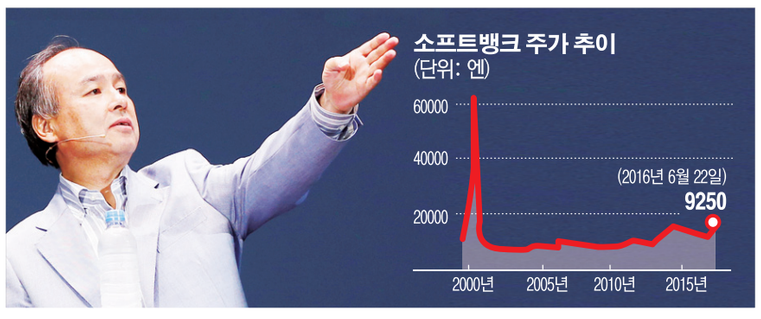
류 사장은 승무원 복장을 입고 신규취항 및 중장기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항공기 3대로 일본과 동남아 등 11개 노선에 취항하는 에어서울은 올 하반기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2대씩 새 항공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류 사장은 "지난해 10월 첫 취항 이후 적자를 내고 있지만, 항공기가 7대로 늘어나는 2018년을 흑자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총 15대의 항공기를 확보해 취항 노선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려운 중장거리 노선을 받아 대신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다카마쓰 △시즈오카 △도야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요나고 △우베 등을, 동남아는 △씨엠립 △마카오 △코타키나발루 등을 운항하고 있다.

류 사장은 "이미 일본, 동남아 중장거리 노선 등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LCC 시장이 됐다"며 "풀 서비스 구조로는 손익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구조를 극복하려 에어서울을 설립했다. 저비용 구조, 경영 합리화로 수익을 개선해 모회사에 도움을 주고 우리 노선도 흑자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환갑 맞은 손정의 "10년 더"

"시총 20조엔 회복하고 퇴임
'비전펀드' 투자 늘려 성장"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새로운 인생계획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21일 열린 소프트뱅크 정기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시가총액 20조 엔(약 205조 원)을 회복한 뒤 내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시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믿고 주식을 산 이들 중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만들고 싶지 않다"며 10년 안에 시총 20조 엔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프트뱅크는 닷컴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인 2000년 2월 사상 최대인 20조 엔의 시총을 달성했다. 현재 시총은 10조 엔으로 정점 당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시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왔다. 1994년 상장 이후 투자한 IT 기업들의 성장과 닷컴버블 덕분에 2000년까지 시총이 급증했지만 버블 붕괴로 단번에 감소해 2002년에는 2700억 엔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영국 보다폰 일본법인 인수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고 IT 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총은 다시 회복, 이달 초에는 10조 엔대에 이르렀다.

앞으로 시총을 10조 엔 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 소프트뱅크가 제시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올해 출범한 10조 엔 규모의 기술투자 펀드 '비전펀드'를 통한 투자 확대다.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기 이전 투자회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 고성장을 노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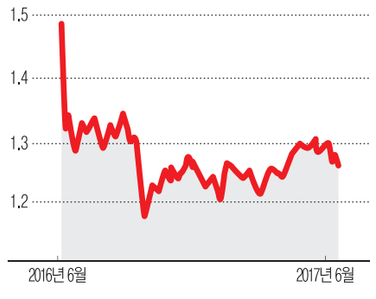
소프트뱅크는 21일 주총에서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등 최근 인수하거나 투자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지난해 약 3조3000억 엔에 사들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에 대해 손 회장은 "ARM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1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갈 칩을 설계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기업을 소프트뱅크가 품고 있다"며 투자 확대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총에 참석한 개인 주주들은 "사업 내용의 변화는 신경 쓰지 않는다.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소프트뱅크처럼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기업에 다른 방법은 없다. 앞으로도 과감하게 도전해 높은 수익을 노려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손 회장의 후계자 문제다. 앞서 후계자 후보로 영입했던 니케시 아로라 부사장이 퇴임한 지도 1년이 지났다. 실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총회에서 손 회장은 후계자 선정에 대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제대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8월로 60세가 되는 손 회장은 이전부터 60대가 되면 후계자에게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넘치는 의욕과 열기에 은퇴를 사실상 뒤로 미룬 셈이다. 주총에서의 발언을 종합하면 손 회장은 향후 10년 안에 시총 20조 엔을 달성하고 후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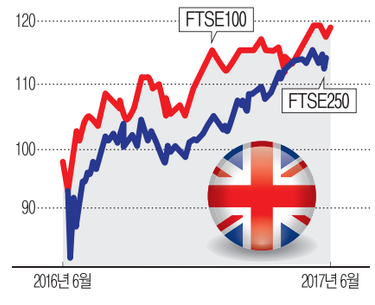
배준호 기자 baejh94@

브렉시트 결정 1년… 英 '유럽의 병자' 전락

파운드·달러 대비 환율



영국증시



파운드화 하락으로 수출 늘었지만 수입물가 뛰며 경기 둔화
1분기 GDP 0.2% 증가에 그쳐… 기업 脫영국 가속화 우려
'하드 브렉시트' 땐 새 무역장벽 세워져 공급망 혼란 불가피
잇단 악재에 메이 리더십 추락… 민심얻은 佛마크롱과 대비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3일로 1주년을 맞았다. 브렉시트로 결정이 났을 당시의 환희도 잠시.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혼란을 배경으로 영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은 서서히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영국 경제는 지난해 브렉시트 결정 후에도 한동안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하지만 파운드화 약세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브렉시트 결정 후 파운드는 달러에 대해 16% 이상, 유로에 대해서는 14% 떨어졌는데 그 부작용이 확산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 경제를 떠받치는 개인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이는 약 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같은 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로 대폭 감소했다. 소비 둔화 여파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성장률도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경기 침체로 금융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이나 제조업 등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를 내다본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브렉시트 후에도 기존처럼 영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탈퇴 방침을 통보한 지 2년 후인 2019년 3월 30일 EU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 협상은 19일 시작됐다. 협상 기한까지 특별 협정을 맺지 않고 EU를 탈퇴하면 관세 등 통상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영국에서의 수출에 관세가 부과돼 영국을 거점으로 제조하는 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사태를 꺼리는 기업들이 투자 축소와 영국 밖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면 영국 내 산업 공동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영국 자동차 판매 점유율 1위인 미국 포드자동차는 이미 서부 웨일즈 엔진공장을 축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지 근로자 1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기관들도 단일 면허로 영국에서 EU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영국에서 이전하는 금융기관이 유로존에서 영업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며 대응을 서두르라고 당부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1년 만에 영국 경제가 이처럼 초라한 상황에 내몰릴 줄 누가 알았을까. 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에 대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게 치명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때만 해도 '유럽의 병자'는 프랑스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달 치러진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결과는 이런 대비를 극명히 보여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이하 앙마르슈)'는 18일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뒀다. 앙마르슈와 연정 파트너인 민주운동당(Modem)은 이번 총선에서 총 577석의 하원 의석 중 350석을 얻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고용과 해고 유연성 확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8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은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잇단 악재로 리더십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지난 3월 런던 의사당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하는 테러가 있었고, 총선 직전에는 런던 시내 타워브리지에서 승합차 돌진으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또 지난달 맨체스터의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장에서는 폭탄테러가 벌어져 22명이 희생됐다. 14일에는 런던 서부의 고층 아파트에 인재(人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79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이 실종됐다.

앞으로도 영국 경제에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동안의 강력한 경제 성장은 주로 이민자와 외국인 직접투자가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브렉시트 결정 이후 모든 게 틀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은 이민 수용을 향후 5년간 매년 10만 명 미만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반면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EU 단일시장·관세 동맹에서 완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EU와의 사이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세워져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하다.

WSJ는 브렉시트 결정에 이은 총선이 영국에 새로운 정치적 위험을 낳았다며 브렉시트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메이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해 정치적 위기가 커지면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 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코빈은 주요 기업의 국유화 및 대기업 증세를 내걸고 있어 노동당 정권 탄생 시 투자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WSJ는 영국이 브렉시트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했다며 5년 후에는 프랑스가 유럽의 새로운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영국은 유럽의 새로운 병자 신세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고인이 돼 고향에 온 웜비어



북한에 18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이 치러진 2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모교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웜비어가 누운 관을 운구하고 있다. 이날 장례식에는 2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웜비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와이오밍/로이터연합뉴스

테크 인사이트 구글글래스 3년만에 첫 업데이트

실패했다고? 공장·의료현장선 귀한몸

앱 버그 수정, 마우스·키보드와는 연동… "개인고객 판매 가능성"

증강현실(AR) 시대의 포문을 열었으나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해 조용히 사라졌던 '구글글래스'가 다시 돌아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9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구글글래스를 업데이트했다.

구글은 20일 자사 제품 지원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사실을 공지했다. 구글글래스 필수 앱인 '마이글래스(MyGlass)' 내 버그가 수정됐고, 블루투스를 통해 마우스와 키보드 등 주변기기 사용도 가능해졌다.

단순한 업데이트 공지였지만 구글글래스가 2015년 이후 일반 소비자에게 전혀 판매되지 않은 데다 심지어 관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도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느닷없는 새 업데이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구글 자회사 네스트의 토니 파델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1월 구글글래스를 책임지게 됐을 당시 "이 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글글래스는 종적을 감추면서 IT 업계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간주됐다. 심지어 구글글래스는 이달 초 스웨덴에서 문을 연 '실패 박물관'에 애플 '뉴턴'과 나란히 전시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그러나 구글은 기업용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물밑에서 칼을 갈아왔다. 구글글래스 개발 협력사인 프리스틴의 카일 사마니 최고경영자(CEO)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중단된 뒤에도 구글글래스는 살아 있으며 오히려 더 잘나가고 있다. 글래스 개발팀은 더욱 커졌다"며 "구글은 우리와 더욱 협력하고 있고 글래스가 비즈니스 도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지난해 5월 18일(현지시간) 개최한 I/O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한 참석자가 구글글래스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고 있다. 블룸버그

구글글래스 등에 들어가는 AR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PX랩스의 제이 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구글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글래스를 판매하고 있다"며 "구글은 자사 제품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는 영역(기업고객)으로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글래스는 보잉의 비행기 공장과 의료 현장 등에서 쓰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크런치는 3년 만에 구글글래스가 업데이트된 것은 구글이 여전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구글 입장에서 구글글래스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말 많은 카타르항공의 아메리칸항공 지분인수

"사이도 나쁜데…" 美업계 당황
단교 사태로 혼란 고조되는 상황
순수한 투자로 보기는 어려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 국가들의 '카타르 단교 사태'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타르 국영 항공사 카타르항공이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항공(AA) 지분투자에 나섰다. 예상치 못한 중동 항공사의 배짱 투자에 미국 항공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AA는 22일(현지시간) 카타르항공이 이달 초 아메리칸항공그룹 주식 1670만 주를 21일 종가 기준으로 8억800만 달러(9199억원)에 사들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AA 지분의 최대 10%를 인수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카타르항공은 이날 AA 측의 발표와 별개로 성명을 내고 AA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최대 지분(4.75%)만큼 사들일 계획이며 이후 AA와 미국 당국으로부터 동의를 구해 지분 규모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AA 측은 카타르의 이같은 투자 의사 통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그 파커 AA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항공의 지분 투자 제안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면서 "카타르항공의 접근으로 이상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계 기업이 미국 항공업계에 지분 투자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다 그간 두 항공사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AA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은 카타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등이 각종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규모 면에서도 카타르 항공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규모 면에서는 여러모로 큰 격차가 있다. AA는 매출이나 운항실적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항공사로 시가총액은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도 카타르의 AA 지분 인수가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카타르항공의 지분 투자 계획은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이 카타르에 대한 단교와 더불어 영공통과를 금지해 카타르의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나왔다. 단교 초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동 국가들의 단교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해당 문제에서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우디가 동맹국인 동시에 카타르가 미국 해외 군사적 기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설립된 지 20년 된 카타르항공은 가장 빠르게 사세를 확장한 항공사 중 하나로 평가된다. 카타르항공은 브리티시에어웨이스 약 20%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밖에 남미의 라탐에어라인그룹과 이탈리아 제2항공사인 메리디아나 등 다른 항공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손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유로운 발상만이 손님의 새로운 기쁨을 만드니까! **자율좌석제**
높여야 할건 오직 손님 뿐이니까! **수평적 기업문화**

새롭게 생각하고 손님만 생각할 때
손님께 더 큰 가치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금융그룹 SMART WORK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 하나금융이 앞서갑니다

"억대 연봉 대기업 노조, 협력사와 임금 나눠야"

'文 일자리 정책' 꼬집은 송호근 서울대 교수

現노동시장 문제의 핵심
하청이 원청 70%만 받고 불황되면 가장 먼저 해고
勞勞연대 없인 해결 안돼

근로시간·최저임금 등은
그 다음 단계적 실시해야



22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송 교수는 "기업을 풀고 노동을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동 전문가'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매서운 평가를 내놨다.

22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송 교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선까지 인상하면 최전선에서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며 "이들에게 일자리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 일거에 전가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자동차, 철강, 조선 부문 대기업의 강성노조는 자본을 밀어붙여서 기득권을 따내고 선을 그었다. 선 밖에 있는 협력사의 노동자와 고용주를 배제하고 그 자신들끼리 이익을 독점했다"면서 '대기업과 강성노조의 이익동맹'이 현재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송 교수의 진단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내파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흥망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분석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조선업 도시인 울산과 거제는 '정규직의 제국'이다. 불평등의 피라미드는 상위 60%의 직영 노동자와 하위 40%의 하도급 노동자로 구성된다. 평소 정규직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된다. 송교수는 이들을 충격을 받아내는 '쿠션'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작년 울산과 거제에서 협력사 노동자 2만 명이 짐을 쌌다.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같은 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을 올리라고 투쟁했다. 내부 자구책을 만들기는커녕 이미 8조 원이나 투입된 정책자금을 또 수혈해달라고 했다. 도덕적 해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송 교수는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정규직)들이 기득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비정규직)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문제의 해법은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불황을 함께 이겨내려는 노동의 연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대 임금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스웨덴 노조에서 드러나듯 건강한 노조일수록 동지애와 연대의식이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진정한 일자리 정치'에 대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이 노사·노노 연대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상위 10% 노조가 앞으로 5년 동안만이라도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를 쪼개 그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원청 대기업은 하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자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새 정부는 그때서야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노동정책과 함께 정부는 상속세 감세, 고용장려금 지급, 에너지, 자재비 등 세액공제 정책 등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보조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송 교수의 훈수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기업을 풀고 노동을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을 풀어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MCM, 국내 패션지 협력
신진디자이너 20명 후원

독일 럭셔리 브랜드 MCM이 패션지 보그 코리아, 서울패션위크와 손잡고 국내의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한다.

MCM은 2018 S/S 서울패션위크의 '제너레이션 넥스트'를 통해 선발되는 신진 디자이너 20명 전원에게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너레이션 넥스트'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패션쇼 및 트레이드쇼 부스 등을 지원해주는 서울패션위크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디자이너들은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MCM은 지난해 8월 탄생 4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라는 기업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패션지 보그 코리아와 신진 디자이너 후원을 위한 '레드키스 클러치백'을 한정 판매했고 이 판매금으로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6년만에 백만장자 된 美 중졸 청년

올해 18세 핀먼 12세 첫 투자
현재 403개… 보유 가치 11억
"수천배 더 오를 것" 전망 낙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미국 '중졸' 청년이 화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12세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에릭 핀먼〈사진〉은 18세인 현재 100만 달러(약 11억400만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핀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403개. 비트코인 시세가 단위당 27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총 109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셈이다. 그 밖에도 핀먼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여러 전자화폐에 소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핀먼은 2011년 5월 할머니가 12살 생일 선물로 준 1000달러와 형인 스콧의 조언 덕분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1200달러 수준이던 2013년 말 첫 번째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후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해 자산을 불려왔다.

핀먼은 향후 비트코인의 가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비용절감 효과도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여기에 쓰인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중앙 시스템 없이 서로 1 대 1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핀먼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교사와의 불화 등 학교생활은 그의 성향과 맞지 않았다. 그는 "(고등학교는) 나의 수준과 맞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15세에 핀먼은 자퇴 의사를 밝혔고 부모도 이에 동의했다.

현재 핀먼은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로켓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그는 다시 학교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먼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아무런 가치를 못 찾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교육시스템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유튜브나 위키피디어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초 자신처럼 학교 교육에 좌절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업체 '보탱글'을 설립하기도 했다. 여기에 들어간 10만 달러 자금은 비트코인을 판매해 충당한 것이다.

배준호·김벼리 기자 baejh94@

인사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호승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임홍기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장 한원호 △〃 평창올림픽기획과장 김병우 △보안국 보안4과장 류영만 ◇**경찰대학** △학생지도부 학생과장 김종민 △치안대학원준비팀장 남제현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김종철 ◇**경찰교육원** △교무과장 양영우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박수영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박희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 증연구실장 엄석화 △공장심사부장 추석권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장 장성수 △장치연구부장 길성희 △대구경북지역본부 검사2부장 장원석 △경남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윤우섭

◆**경기대** △총무처장 정명권 △감사실장 문일환 △교학부총장 이상섭 △교무처장 김성우 △산학협력단장 김동원

◆**두산그룹** 〈임원 승진〉 △두산밥캣 상무 박성조

황영기 회장, 중증장애인 돕기 봉사

〈금투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방문
재활·자립 2000만원 전달

한국금융투자협회 임직원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황영기 회장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은 올해로 6년째다. 협회 임직원은 원내 장애인 생활실과 식당을 청소하는 한편, 식사보조 도우미로 나섰다. 평소 야외 나들이 기회가 적은 어린 원아들을 위해 외부 영화관람 보조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함께 봉사에 나선 황 회장은 전문적인 치료와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는 한사랑마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투자 업계가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가운데)이 22일 경기도 광주 한사랑마을에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한편, 금투협은 올 상반기 복지시설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봉사활동과 '1사1촌' 초등학생 초청 경제교육, 영등포 장애인사랑 나눔의 집 급식봉사 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금융투자업계 자선 야구대회',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한국여성 인물사전 〈139〉 김학순(金學順)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첫 공개 증언



김학순(金學順)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여성이다. 그녀의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와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김학순은 1924년 만주 지린(吉林)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학순이 백일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평양에 돌아와 살다가 재혼했다. 김학순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14세에 기생집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 1941년 17세에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다. 신의주를 거쳐 산하이관(山海關)을 지나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어느 식당에서 나오다가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 트럭에 태워졌다.

다음 날 도착한 곳에서 김학순은 강간을 당했다. 그 뒤 만난 조선 여성들에게 "여기서 도망치기는 글렀다"는 말을 들었다. 함께 '위안부' 생활을 했던 5명은 열아홉 살부터 스물두 살의 조선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 이름으로 불렸다. 김학순도 '아이코'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

군인은 주로 오후에 왔고, 여러 날 토벌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하루에 7~8명이 오기도 했다. 얌전하게 있다가 가는 군인도 있었고, 거친 요구를 하는 군인도 있었다. 반항을 하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두 달 뒤 새로운 곳으로 옮긴 다음에는 군인의 횡포가 더 심했다. 김학순은 사는 게 너무 비참해서 탈출을 결심했다.

어느 날 일본군이 토벌하러 나간 사이에 조선인 남자가 왔다. 김학순은 그에게 가다가 죽어도 좋고 중간에 내버려도 좋으니 제발 데리고 나가달라고 애원했다. 탈출은 성공했다. 새벽 두세 시쯤 빈 몸으로 위안소를 빠져나왔다.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던 남자는 중국 각지를 다니며 장사를 했다. 김학순은 그를 따라다니다가 상하이(上海) 프랑스 조계지에 정착했다. 1943년 19세 되던 해에 딸을 낳았고, 1945년 21세에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전당포를 운영하며 그리 어렵지 않게 살았다.

1946년 6월 한국 땅을 밟았다. 거처가 마땅치 않아 장충단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큰딸이 콜레라에 걸려 죽었다. 한국전쟁 때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고, 그 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마저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온갖 궂은일을 하며 어렵게 살다가 우연히 원폭 피해자를 만나 억울한 경험을 함께 이야기했다. 1990년 6월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고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내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그 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97년 12월 평생 모은 약 2000만 원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 뒤 눈을 감았다.

김은경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故이응노 화백, 유럽서 잇따라 회고전

이달부터 佛파리·스위스 거쳐
9월 다시 파리 퐁피두센터서



현대미술의 거장 고(故) 이응노(1904~1989)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이 화백의 주 활동무대였던 유럽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응노미술관은 9월 파리에 있는 퐁피두센터에서 이응노 화백의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는 1950년대부터 1989년까지 이응노의 작품 70여 점을 총 9개 섹션으로 나눠 관람객이 그의 작품 활동을 주제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앞서 지난 9일부터는 파리 세를 누 쉬 시립동양미술관에서 '군중을 그리는 사람, 이응노'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이후 스위스 전시회를 거쳐 9월 프랑스 퐁피두센터 개인전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화백은 1957년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현대작가미술전에 참가하고 이듬해에도 초대를 받는 등 현대적인 작가상을 스스로 확립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1958년 부부 관계였던 제자 화가 박인경과 더불어 독일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정착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88올림픽 엠블렘 디자인
양승춘 서울대 교수 별세



1988 서울올림픽 공식엠블렘을 디자인했던 양승춘 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20일 숙환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7세.

한국 그래픽디자인계의 1세대로 꼽히는 고인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지정 공모전에서 전통적인 삼태극 문양을 활용한 공식 엠블렘 디자인으로 당선됐다. 이 엠블렘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전통미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걸작으로 꼽힌다. 고인은 OB맥주, 금복주, 한샘, 오리엔트 시계 등 국내 기업이미지(CI)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했다.

부음

▲**김한철**(대원고 교감)·**한덕**(TBC 경영이사)·**한경**(메리츠종금증권)씨 모친상 = 22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24일, 053-766-4444

▲**전성길**(전 프로야구 현대유니콘스 운영부장)씨 부친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최병민**(깨끗한나라 회장)씨 모친상 = 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2-2072-2010

▲**김경환**(전 안동서선초 교장)씨 별세, **승규**(전 우리은행 부행장)·**종규**(우리P&S 대표)·**진규**(LG전자 상무)·**영혜**(광릉중 교감)씨 부친상, **김영식**(전 제일은행 지점장)·**김보순**(케스케이드코리아 대표)·**류홍목**(인천산곡4동장)씨 장인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7

56th ANNIVERSARY

남자의 부러운 혜택!

IBK나라사랑카드



통합할인한도 조건 없는 할인혜택

- 군마트(PX), GS25, CU 할인
- KTX, 고속버스, 대중교통 할인
- 전국 6대 놀이공원 현장할인
- 현실적인 전월이용실적 충족 시 제공

전월실적 관계없는 편리한 서비스

- Syrup 통합 멤버십
- 그린카드 적립·할인 서비스
- 모든은행 ATM 출금수수료 면제
- 후불교통카드 기능
- 현역병 상해보험 무료가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227호(2017.04.06), 발급대상: 입대예정자, 현역병사 등 / 발급구분: 체크 / 연회비: 면제

※ 이 안내장은 2017. 04. 0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축소 ·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2015. 12. 21)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하나 /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 IBK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최저 16.5% ~ 최고 연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내 인생의 한 곡 '봄날은 간다'

나는 한 편의 시(詩)를 완성하면 그 시를 소리 내어 읽고 노래를 한 번 부른다. 곡진한 마음이 저절로 노래로 이어지는 것 같다. 잦은 일은 아니지만 혼자 와인을 마시고도 노래를 한 번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왠지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 털어 놓은 것같이 후련해지기도 한다.

조금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면 우두커니 앉아 있기가 쉬운데 울컥 마음을 가누기 힘들어지면 또한 노래 한 가락을 부른다. 내가 들어도 너무 애절하다고 느끼면 노래를 걷어치우고 잠들어 버린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딱 하나 '봄날은 간다'이다.



시인들이 모여 놀면 반드시 나오는 노래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노래가 또한 '봄날은 간다'이다. 장사익 선생도 애간장이 타게 부르고 조용필 가수도 복장 터지게 부르는 노래이지만 나도 나름으로 내 앙가슴을 부여잡고 부르며 속을 게워내곤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 혼자 부르면 기막히게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 그게 그거다. 그래서 나는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더러 '부용산'도 '해운대엘레지'도 부르지만 역시 내 노래는 '봄날은 간다'이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것도 집이 빛에 넘어가고 서울 변두리에서 몇 해를 보낼 때, 아버지의 생신(生辰)이던가 우리 가족들 밥상에 막걸리가 놓여 있었다. 오늘 밤은 울어도 된다는 엄마의 허락같이 막걸리가 아버지의 손에 들리고 언니와 내 주발에도 막걸리가 부어졌다.

아버지가 먼저 마시고 우리도 따라 말없이 마셨다. 두어 번 그렇게 돌았다. 엄마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한 잔도 잘 못 마시는 아버지가 벌써 세 잔째다. 엄마가 팔을 잡은 것이다.

아버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서 고복수의 '타향살이'를 불렀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에/ 청춘만 늙고…" 그쯤에서 노래가 그쳤다. 목울대가 덜덜 떨리고 이미 아버지의 볼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밥상은 거의 통곡 수준이었다. 모두 울었다. 그때 왜 그렇게 슬펐을까. 세상의 비극이 온통 우리 집에만 내려 쏟은 것 같은 그런 밤이 지금도 나의 기억에는 있다.

아버지의 통곡 노래를 따라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내가 '봄날은 간다'를 이어 불렀다. 나는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봄날은 온다'라고 고쳐 부르며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의 손도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온다'라고 하면 어쩐지 우리가 원하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에게 봄날은 꼭 올 낍니다." "내 니 노래 처음 듣는다." "그래, 올 끼다." 어머니가 답했다.

아버지의 노래는 지금도 가끔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왜 그렇게 오래 눈물이 흘렀는지…. 울음은 밥상으로 번져 오래 밥상 끝이 울었다. 우리 집엔 바다의 파도와 산의 굽이굽이 능선과 골 깊은 계곡과 가도 가도 끝없는 하얀 길이 있었다. 그래도 '가족'의 사랑이 있어 각자 자기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 게다. 가끔 '봄날은 온다'를 부르면서.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 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0%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경제와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문제는 산업구조가 부실화해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8%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2%대로 추락했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360조 원을 넘어 가계부문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진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시급한 과제는 산업구조 개혁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산업은 수명을 다했다. 대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자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부실의 함정에 빠졌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의 핵심 수단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부실 대기업들의 장벽에 갇혀 숨이 막히고 있다.

방법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미래 산업 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로 늘려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분배제도를 개혁해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늘리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정부가 이끌겠다는 뜻이다. 올해 예정인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소방관,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 증가는 사회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기와는 연관성이 낮다.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직업훈련, 기업경영 지원 등의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늘려 민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을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하다. 세금 먹는 공공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데 또 절실한 것이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육아문제 등의 민생 해결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고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정책 대부분이 시혜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민생 해결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여 스스로 빚을 갚고 민생을 해결하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세금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한 컷

느리게, 그리고 기다리기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써 가며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을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잘 도착했을까', '답장은 언제 올까' 하는 설렘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단어 하나도 줄임말을 써 가며, 메신저에 '읽음' 표시가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끔은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느린' 기다림의 무게를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카드로 보는 세상



'빙수의 달인'들이 만드는 팥빙수의 맛은 어떨까요? 주재료는 팥과 얼음이지만, 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팥빙수는 환상의 맛을 자랑합니다. 전국에서 '팥빙수 달인'으로 손꼽히는 맛집들을 찾아 그 비법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팥에 호박, 대추를 함께 넣어 졸여내거나 고구마와 사과즙, 마가 들어간 팥으로 맛을 내는 집도 있습니다. 얼음에도 비법이 있죠. 꿀을 넣어 급속냉동하거나 유자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팥빙수 열전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sA8toR

온라인 와글와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한국 2년 연속 26위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데"



한국이 2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26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문에서는 꼴찌다. 22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17 사회발전지수' 결과를 인용해 조사에 참여한 128개국 중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26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가 올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위생, 주거, 개인안전 등) 부문에서 91.74점으로 26위, 웰빙 기반(정보·통신 접근, 건강과 복지 등) 부문에서는 83.96점으로 28위를 기록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는 54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문은 11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네티즌은 "한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데", "교통, 치안, 의료복지만큼은 한국이 최고더라", "청년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이슈&인물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

심 광 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정부 추진 소규모 재건축사업 재개발만큼 수익 보장 못해 추진동력 얻지 못할 가능성 커 높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 줘야

LTV·DTI 강화 6·19대책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져 신규 아파트 분양 차질 우려 집단대출 정상화 등 해결해야

강원 임대주택 시장 강자

1953년생으로 중앙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산업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세경개발을 설립해 1994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의 석미건설을 탄생시켰다. 1994년 충남 천안에서 '세경 개나리 아파트'를 처음 준공하며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석미건설은 횡성·동해·고성 등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강원 임대주택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심 회장은 오랜 기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인정받아 2006년 대통령 표창, 201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작년 12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광일 회장은 지난 6개월이 6년 이상의 기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정권 교체기의 혼동도 혼란스러웠지만, 짧은 기간 내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심 회장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정부 규제대책'이라는 악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 새 정부의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과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民)과 관(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민관 협동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인 중견·중소 건설사의 새 먹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적임대주택 부문만 봐도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갈 때에만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를 오롯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새 먹거리가 될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의 방향이라면 성공을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1년에 몇백 곳을 지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방식은 메리트가 없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에 민감한 중견·중소건설사인 만큼, 그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다. 실업 해소와 고용 증대 등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뛰어난 주택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이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응책이 예고된 가운데,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심 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수요 위축시킬 추가 규제엔 신중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가량 지났는데, 그동안 업계와 협회를 돌아본 소회를 말해 달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잇따른 금융 규제로 인한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19일 새 정부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 현상을 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시장의 경착륙(硬着陸)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주택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정상화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새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최근 주택시장의 국지적인 과열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에선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기존 지역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또 집단대출에 잔금대출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TV와 DTI 금융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의 연착륙(軟着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업체들의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DTI·LTV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정책 시행이 요청된다. 실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장기 하락과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현시점에서 주택 수요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용역 진행중

△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내놓으며 주택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존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주택건설업체들에 적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협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마을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공공부문 위주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예상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출 보증과 건설비가 지원돼 중소주택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에 맞춰 중소주택업체들의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취임한 심광일 회장은 새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 공급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임대주택사업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부문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도시재생구역과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원사 가장 큰 애로는 '집단대출 규제'

△협회장 취임 후 많은 회원사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나

"현재 회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이다. 분양이 거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심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높은 금리도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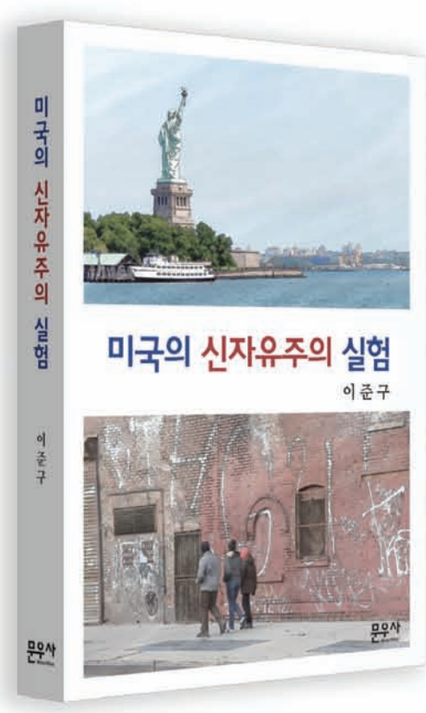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현장 감리자를 평가해 추후 감리자 선정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 주체는 효율적인 감리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의견 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감리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알려 달라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현재의 표준건축비를 사용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쳐 그 차액만큼 원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의 67% 수준인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하게 되면, 이익은커녕 오히려 임대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줘 손실이 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면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택업체들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주택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협회의 건의와 설명으로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행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미국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에 울리는 경종
정부는 악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악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결코 닮지 말아야할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성숙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의 : 031-901-6542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신물 나게 외운 日本語 대사… 지금도 쿡 찌르면 술술”


사진제공 메가박스(주)플러스엠

인터뷰 영화 ‘박열’ 이제훈

배우 이제훈이 ‘박열’을 통해 일제강점기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온몸으로 받아들인 박열은 1919년 3·1 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일제의 폭압에 분노를 느끼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 적극적으로 투쟁했던 인물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 인물인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인 일본 여성 가네코 후미코(최희서)를 불러낸 이는 ‘동주’의 이준익 감독이다. 이제훈이 이준익 감독과 떠난 시간여행의 후일담을 들어봤다.

△박열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나.

“‘박열’에 출연한 계기는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점이었다. 무조건 하겠다고 덤벼들었다. 시나리오를 읽고 박열이라는 인물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일본 만행을 밝히기 위해 감옥에서 22년 2개월을 버텨 끝까지 살아낸 의지에 숙연해지더라. 많은 분들에게 박열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촬영하면서 커진 경우다.”

△기대를 했던 이준익 감독님과의 호흡이 궁금하다.

“촬영 들어가기에 앞서 감독님과 함께했던 배우들에게 감독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다. 다들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 (촬영장에) 놀러가는 기분도 든다고.(웃음) 촬영 후, 왜 많은 분들이 감독님과 또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다. 감독님은 배우에게 연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신다. 소위 말하는 ‘꼰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영화를 만드는 열정이 존경스러웠다.”



일제폭압에 맞서 투쟁한 아나키스트 박열役
일어도 못하면서 이준익 감독 존경심에 ‘OK’
대사 녹음기 틀고 맹연습… 스태프도 혀 내둘러
극중 20대 역할… 치열했던 삶 되돌아보는 시간

△대사의 많은 부분을 일본어로 소화했다. 수준급 실력이던데.

“나는 원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밖에 못하는 사람이다.(웃음) 한국어로 감정을 담아 대사하는 것도 벅찬데 일본어로 해야 하나 부담이 컸다. 영화에 함께 출연한 세 명의 배우들에게 일본어를 배웠다. 한 사람에게만 배우면 그 사람의 톤으로만 읽힐 것 같아 여러 명에게 배워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다. 녹음기를 촬영 내내 끼고 살았다. ‘이 친구 참 열심히 하네’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는 그만’이라고 할 정도였다.(웃음) 보통 작품이 끝나면 대사가 흐릿해지는 이 작품의 일본어 대사는 지금도 찌르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다.”

△작품 속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를 연기한 최희서와 연기 호흡이 인상적이었다.

“독립영화를 통해 최희서를 알게 됐다. 이후 ‘동주’를 통해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했고, 가네코 후미코를 연기할 사람은 최희서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후미코라는 캐릭터를 마치 실제 인물에 가깝게 표현하는 점이 감명 깊었다. ‘박열’을 통해 최희서 씨가 보석처럼 빛나리라 생각한다. 충무로를 이끄는 차세대 여배우가 되리라 확신한다.”

△극중 박열은 20대 초반이다. 이제훈의 20대 초반은 어땠나.

“연기에 대한 꿈만 가지고 뛰어든 시점이었다.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를 배우고, 극단에서 뮤지컬도 익히면서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다가 고민이 왔다. ‘배우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등 고립되고 머물러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다. 배우라는 직업은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고 선택해 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혼란스러웠다. 고민을 하다가, 나를 던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25살에 학교에 다시 들어갔다.(고려대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했다.) 치열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다. 당시에는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덕분에 단단해질 수 있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CD 부순 GD

LP→테이프→CD 그다음은 USB?
지드래곤 새 음반 ‘4차 음반 혁명’ 도발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은 솔로 음반 ‘권지용’을 CD가 아닌 USB 형태로 출시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화면에 시리얼 번호 입력란이 등장하고, 여기에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 아트 워크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USB는 음악, 음악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유통하는 채널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음반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을까.

공인 음악 차트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음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온차트가 내린 ‘앨범’의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만으로 한정한다”면서 “‘권지용’ USB를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차트 및 다운로드 차트와 앨범 차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로써 ‘권지용’ USB 판매량은 음반 차트에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드래곤이 던진 화두가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권지용’의 판매 실적이 어느 차트에 집계되는지 때문만은 아니다. CD 및 관련 디바이스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USB 음반의 출연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음악 유통 채널이 LP와 테이프, 그리고 CD를 거쳐 USB에 당도하고 있다.

USB 형태의 음반은 과거에도 존재해 왔다. 마이클 잭슨, 퀸, 본 조비 등의 음반이 USB로 제작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수 김장훈과 이승기, 그룹 갓세븐 등이 USB 음반을 발매했다. 그룹 빅스, 신화, 비투비 등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카드 형태로 제작된 ‘키노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대체 음반의 등장은 CD 시대의 퇴장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휴대가 불편한 CD플레이어는 작고 휴대가 간편한 MP3와 휴대전화에 빠른 속도로 자리를 내줬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CD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간다. 더욱이 ‘권지용’ USB는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콘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말까지 ‘권지용’ 음반과 관련한 콘텐츠를 USB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CD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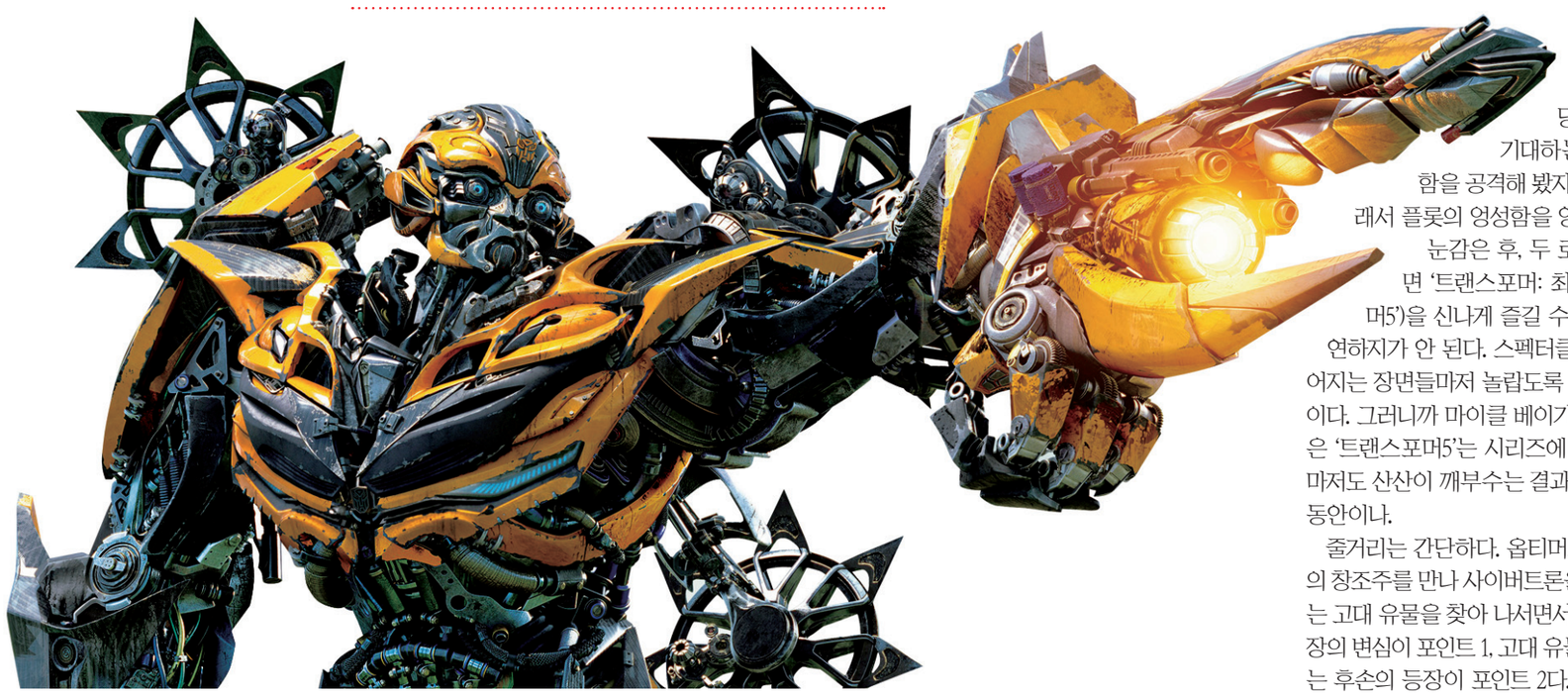
빌보드지는 ‘권지용’ 음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인터넷이 완전히 새롭거나 대안적인 청취 방법을 만들고 있다. 차트 운영팀은 그들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온차트 측 역시 “이번 결정은 현 정책체제하에서의 미봉책”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남은 것은 실제적인 움직임인데 지드래곤의 USB 음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

재미 없고, 시끄럽고, 엉성하고, 명배우 병풍연기에, 난데없는 러브라인까지 있다지만…

당연히… 봐야겠지?

영화 ‘트랜스포머:최후의 기사’ 리뷰



어차피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관객이 원하는 것은 유려한 내러티브가 아니다. 당연하지! 아마도 마이클 베이가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인 1순위는 시각적 스펙터클의 향연일 것이다. 당연하지! 그러니 볼거리를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플롯의 엉성함을 공격해 봤자 소용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플롯의 엉성함을 양보하고, 구멍 난 개연성을 눈감은 후, 두 로봇 진영의 전투에 집중하면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이하 ‘트렌스포머5’)을 신나게 즐길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건 당연하지가 안 된다. 스펙터클이 유성처럼 후두두둑 떨어지는 장면들마저 놀랍도록 심드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베이가 하차를 번복하고 다시 찍은 ‘트랜스포머5’는 시리즈에 남아 있던 일말의 미덕(?)마저도 산산이 깨부수는 결과물이다. 그것도 장장 150분 동안이나.

줄거리는 간단하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랜스포머들의 창조주를 만나 사이버트론을 되살리기 위해 지구에 있는 고대 유물을 찾아 나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옵’ 대장의 변심이 포인트 1, 고대 유물을 유일하게 매만질 수 있는 후손의 등장이 포인트 2다. 이 과정에서 영화엔 ‘인디아나 존스’와 ‘반지의 제왕’이 스치기도 한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시끄럽게! 4편에 이르는 동안 ‘속편의 법칙’을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던 마이클 베이는 이번에도 시각적 볼거리의 총량을 늘리고 늘리고 늘려 시청각을 난타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토록 거대하고 미끈하고 화려하게 한탕 싸움이 펼쳐지는데, 흥이 나지 않는다. 액션 편집의 리듬이 별로라는 얘기다.

4편에서 개선됐다 생각했던 ‘싸우고 있는 저 로봇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혼동됐던’ 단점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명백한 후퇴다. 시각적 쾌감이 뒤로 갈수록 점차 효력을 잃어가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도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후퇴한 또 하나는 유머와 배우들의 연기다. 그래도 지난 시리즈들은 유머에 있어 어느 정도 높은 타율을 선보인 바 있다. 샤이아 라보프가 주연을 맡았던 1편의 경우 그 유머감각이 특히나 탁월했다. 그러나 이번 편에서의 유머구사 능력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느닷없는 러브 라인에선 살짝 민망해질 정도. 무엇보다 관록의 명배우 안소니 홉킨스마저도 로봇들의 병풍으로 만드는 마이클 베이의 재능에 찬탄을 금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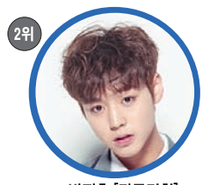
물론 누군가가 ‘욕해도/말려도’ 누군가는 이 영화를 찾을 것이다. 애증의 시리즈란, 이런 것이니까. 욕하면서 본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그것.

정시우 기자 siwoo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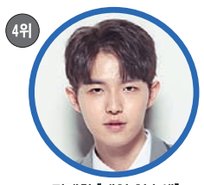
데뷔·콘서트·광고·팬미팅 워너원도 탈락생도 '꽃길'

도넘은 팬질과 순위 경쟁 높은 인기만큼 깊은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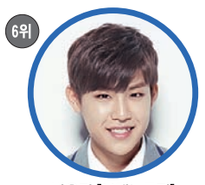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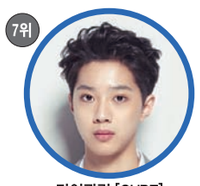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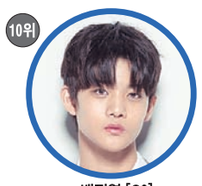














'프듀101 시즌2' 종영…최종 11인 선발
앞으로 1년 8개월간 활동 스케줄 꽉 차

김사무엘 솔로로…유회승 새 멤버 합류
이유진·장문복·김태민 등 팬과 소통행보

"김종현 탈모 같다" "이대휘 비호감"
인신공격 발언에 사생활 간섭까지

매주 자리 바뀌는 피라미드 세트장
꿈의 실현 과정, 잔혹하고 비인간적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이하 프듀2)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워너원은 물론, 탈락한 연습생에게도 꽃길이 펼쳐지며 새로운 2막을 알리고 있다.

16일 '프듀2'가 종영했다. 문자투표와 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등 11인이 대국민 보이그룹 워너원으로 최종 선발됐다.

국민이 선택한 11인의 워너원은 분명한 꽃길 행보가 예약됐다. 합숙에 돌입한 이들은 화장품 브랜드 및 교복 등의 CF촬영에 이어 오는 7월 1~2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콘서트를 마친 뒤에는 데뷔앨범을 발표, 보이그룹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 전망이다. tvN 'SNL코리아9' 출연과 '현장토크쇼 택시' 출연 또한 예정된 만큼 예능 활동이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부분은 '겸업 금지'다. 지난 시즌의 걸그룹 아이오아이와 달리 워너원 그룹 활동과 소속사의 개별 활동은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 이에 더해 활동 기간 또한 지난 시즌보다 1년 늘어나 총 1년 8개월에 달한다. 그런 만큼 워너원 활동이 아이오아이와는 다른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콘서트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된 만큼 이들을 응원할 팬덤의 열기는 뜨겁다.

워너원 외의 연습생 또한 꽃길이 예약된 건 마찬가지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뉴이스트는 그룹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워너원으로 발탁된 멤버 황민현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올 하반기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것을 예고했다. 새 앨범 발매가 어떤 성과를 낼지도 기대가 모이는 부분이다.

데뷔의 꿈을 잡은 연습생도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김사무엘은 솔로 데뷔를 확정짓고 활동명 또한 사무엘로 변경했다. 유쾌한 캐릭터로 사랑받은 유회승은 같은 소속사 보이밴드인 엔플라잉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다. 노태현은 워너원 멤버로 선발된 하성운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친정그룹 핫샷으로 컴백, 7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안형섭 이의웅 저스틴 정정 최승혁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도 이들의 데뷔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뷔를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연습생도 나타나고 있다. 이유진은 같은 소속사 신인 배우 송강, 오승훈과 함께 공동 팬미팅을 연다. 장문복 김성리 주원탁 등도 팬미팅을 개최하며 팬들과 함께 호흡했다. 장 폐색증으로 아쉽게 중도하차한 김태민도 최근 팬미팅 개최 사실을 알렸다. 독자적인 팬덤을 구축한 권현빈 또한 7월에 팬미팅을 열 예정이다.

시즌1의 기록을 일찌감치 돌파한 '프듀2'다. 출연자들 또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

16일 종영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는 탈락자 연습생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줬다. 이들은 언론사를 돌며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네이버 V앱 채널을 개설해 방송을 진행한다. 팬미팅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프로그램은 연습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안겨다 줬고 소속사는 팬덤의 '화력'이 사그라지지 않게 각종 '떡밥'을 투하한다.

프로그램이 거둔 성과 또한 만만치 않다. 마지막 회 평균 시청률은 5.2%에 달한다(닐슨코리아 집계, 전국 유료플랫폼 가입 가구 기준). 시즌 1과 시즌 2를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방송은 10주 내내 콘텐츠 영향력 지수 1위를 달리고, 발표 음원은 각종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오는 7월 개최되는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든 표가 동났다.

약 두 달간 이어진 게임에서 패자는 극히 소수이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다. 하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과연 이것은 성공한 프로젝트일까.

"어니부기(김종현 연습생)가 탈모인 것 같아 뽑지 않기로 했다." 프로그램 안에서 재밌는 농담처럼 소개된 어느 시청자의 발언은 출연 연습생들과 그들을 '픽(Pick)'할 권한을 가진 시청자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표를 다른 연습생들에게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생들의 생존과 직결된다. 투표권은 권력이 된다. 그리고 그 권력은 연습생의 '럽스타그램'이나 놀이공원 나들이 등 사적인 영역을 간섭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픽'을 담보로 연습생들에게 실력과 매력과 심지어 인성까지 요구한다. 브랜뉴뮤직 소속 이대휘 연습생이 인지도 높은 연습생들로 팀을 꾸린 것은 그룹 배틀 우승을 위한 당연한 전략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팀을 '어벤저스'라고 부른 혐의로 인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습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비호감'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다. 오직 '노오력'만이 살길이다. 하지만 '노오력'을 통해 당도해야 할 기준점은 이제 '완벽'에 가깝다.

순위 발표식마다 연습생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세트장을 마주한다. 낮은 순위를 받은 연습생이 아래쪽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높은 순위의 연습생은 모든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점한다.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는 순위의 지배가 자연스럽다.

'프로듀스101 시즌2'는 연습생들의 '꿈'을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연습생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만큼 높은 유명세를 담보한다. 이것은 달콤한 약속이다. 하지만 약속이 이뤄지는 과정은 매우 잔혹하며 때로 비인간적이다. '프로듀스101'이 더욱 큰 성공을 이룰수록, 상식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

"3년만큼 늙었네"… 이효리에게 겨우 그걸 바랐나?

무한도전 '이효리편' 맥락없는 과거 끌어내기 실망
제주도 삶 보여주는 JTBC '효리네 민박'과 비교

"이상순(가수 이효리의 남편이자 뮤지션) 가만 안 둬." "난 한수민(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이길 수 있어." 17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한 장면. 박명수가 공격하자 이효리가 맞받아친다. 박명수는 금세 꼬리를 내린다. 사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효리가 '무한도전'에 출연했다. 2014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특집 진행 도중 '급만남'이 성사된 지 3년 만이다. 2013년 이상순과 결혼한 뒤 제주도에 터전을 마련한 이효리는 수년간 방송 출연을 마다하고 자연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3년 동안 매일 요가로 정신을 수양했고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그녀는 달라졌다.

하지만 '무한도전'이 이효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3년 전 혹은 그 이전으로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과거 '죄와 길' 특집에 출연해 "재석 오빠가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폭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멤버들에게 독설을 해주길 기대한다. 적막한 제주도의 삶 속에서도 솟구치는



사진제공 MBC

흥을 주체하지 못해 "오빠, 나 서울 갈래"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다시 '노는 언니'로 변신하길 바란다.

이효리의 변화를 받아들일 재간이 없으니 출연진의 발언은 점점 무리해진다. "이효리를 만나자마자 3년만큼 늙었다고 말하겠다"는 박명수의 호언은 도무지 맥락을 찾을 수 없다. 웃기기는커녕 어리둥절하다. 유재석은 진정한 요가의 의미에 대해 고백하는 이효리에게 "답답해서, 웃기고 싶다는 마음에 나온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다. 그는 "잊힐까 봐 무서웠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야 만족스럽다는 듯 "이효리 맞네"라고 말한다.

'무한도전'은 그간 여러 차례 프로그램에 대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리얼리즘과 순발력을 겸비한 대사로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효리에게 나이 공격이나 해대고 남편 이름이나 거론하는 정도라니, 그것도 지난 수년간 인생의 방향을 달리하고 돌아온 이효리에게. 실망스럽다.

'무한도전'이 지난 11년간 이어 온 방식으로 11년 전 이효리의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동안, JTBC는 '효리네 민박'을 론칭해 이효리의 제주도 라이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누군가는 이효리의 일상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지만 '무한도전'은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이효리의 모습을 '애써' 끄집어낸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 시청자들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연달아 얻어맞는 예능+드라마 '최고의 한방'

"작위적·콩트식 연출이 몰입 방해"… 불만 쏟아져
아들 '숭의초 폭행' 연루 윤손하, 거짓해명도 악재

'최고의 한방'에 악재가 겹쳤다.

2일 호기롭게 출발한 KBS2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이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기도 전에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떨어지는 시청률, 그보다 더 떨어지는 화제성, 여기에 출연자 논란까지 겹쳤다. 그러자 "왜 이렇게까지 됐냐"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나온다.

'최고의 한방'은 시작부터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었다. '프로듀사'를 기획해 성공시킨 서수민 PD가 KBS 제작 전문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처음으로 내놓은 작품이었고, 여기에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를 정상에 올려놓은 유호진 PD와 배우 차태현이 연출을 맡는다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KBS가 새롭게 선보이는 금토드라마의 스타트 작품이라는 점 역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KBS는 '최고의 한방'을 2TV 금, 토 오후 11시대에 편성하면서 '배틀트립', '연예가 중계' 등 예능 프로그램 시간대를 대거 이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난 후 내용 전개와 연출 등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부각하기 시작했다. 화제성을 만족감으로



사진제공 비즈엔터

전환시키는 데 실패한 것. '최고의 한방'이 표방했던 예능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12회가 될 때까지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작위적이고 콩트적인 상황 설정들이 "몰입을 방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배우 윤손하 아들이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점도 악재로 꼽힌다. 윤손하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의 폭행 사건에 윤손하 아들이 연루됐고, 이를 해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불거지면서 "하차해야 한다"는 글이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도배되기도 했다.

'최고의 한방' 제작진은 "어린 아이들이 관여돼 있어 모두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윤손하 씨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드라마에 집중하며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 관계자는 "윤손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최고의 한방'의 부진은 어찌 보면 예고된 일"이라면서 "출범 초기 언급이 많이 됐던 '프로듀사'는 박지은 작가, 표민수 PD, 김수현까지 작가와 연출자, 배우 등 최고의 군단으로 뭉친 작품이다. '최고의 한방'과 비교하기 힘들뿐더러 그때와 달리 금, 토 시간대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최고의 한방' 말고도 볼 예능과 드라마는 많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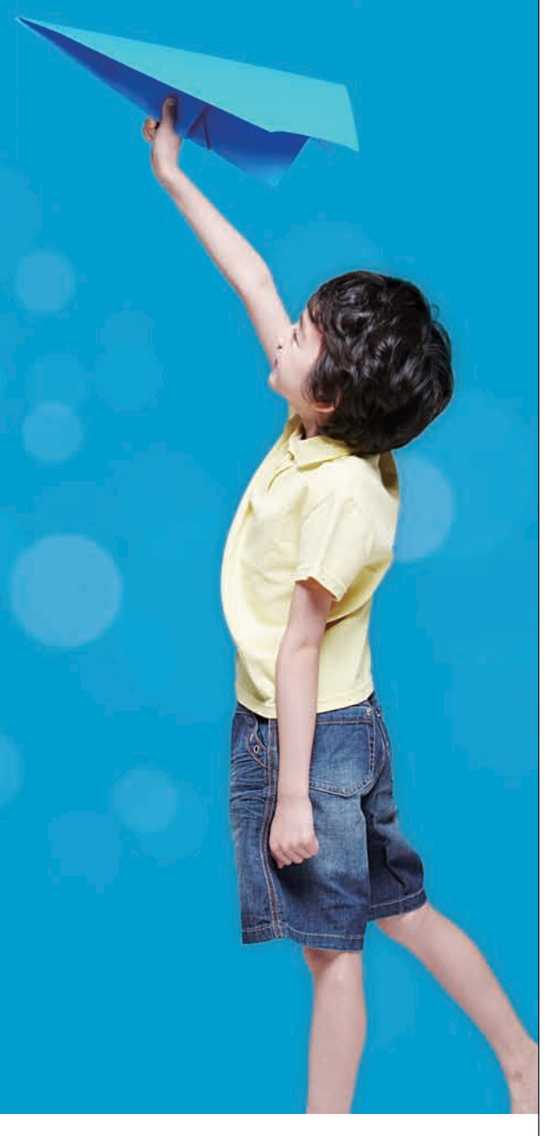
김소연 기자 sue123@

www.LH.or.kr

100만 가정의 생애파트너,
LH가 있잖아요

서민의 주거안전망 구축 노력으로
LH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택으로
국민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국민의 집걱정을 해결하는 생애파트너 임대/분양 등 약 300만 가구에 보금자리 제공(국내 총가구의 약15%)
| 도심과 지역을 재창조하는 개발플래너 16개 신도시, 세종시 · 혁신도시 등 서울시 면적 규모의 도시 개발
| 국가의 재도약을 함께하는 경제서포터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기반시설 개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반기 서점가 '文'으로 통했다

문 재인 대통령 관련 서적

자서전 '운명' 한때 주간판매 종합 1위
유시민·샌델…정치·사회 이슈 서적 불티
'4차 산업혁명' 주제 경제·경영 도서도

올해 상반기 서점가는 '송인서적 부도'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문학계 거장들의 잇따른 신간 출간과 미디어셀러 효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부도 처리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소비심리 때문에 출판계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드라마 '도깨비 특수', '대통령 특수' 등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도서 등 국내 서점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치·사회 분야의 서적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등장한 잡지의 판매가 급등하면서 잡지 분야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시·에세이 관련 서적의 인기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졌지만, 초·중·고 학습 서적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점가는 올 상반기 소설, 시·에세이 분야에서 다수 도서가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면서 전체 판매 점유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가장 인기를 끈 책은 뒤늦게 베스트셀러로 오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였다. '언어의 온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에 저자의 감성이 더해진 책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역주행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인터파크도서에서도 올 상반기 종합베스트셀러 1위, 예스24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도서 등 국내 서점가는 올해 상반기 치러진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대통령 특수' 현상이 나타나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등장한 '타임 아시아판'을 비롯해 '문재인의 운명' 등 관련 서적이 종합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근현대사의 아픔을 다룬 김훈의 '공터에서', 30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 소설책도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82년생 김지영'은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에게도 선물로 건네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문학 관련 서적의 매출 신장을 이끈 것은 '도깨비 열풍'이 한몫했다.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이 읽은 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를 비롯해 '도깨비' 소설과 포토에세이까지 주목받았다. 이를 계기로 시집이 관심을 끌기도 했고,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시들을 엮은 시집도 인기를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시작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서적도 주목받았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

문 학서적 판매 상위권에…

김훈 '공터에서'·조남주 '82년생 김지영'
황석영·베르베르…거장들의 반가운 귀환
드라마 '도깨비' 열풍에 관련 시·소설도

고,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특수'로 인해 관련 서적이 화제를 모았다. 예스24에서는 올 상반기 종합베스트셀러에서 문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등장한 타임 아시아판이 1위에 올랐으며, 인터파크도서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현직 대통령의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은 한때 서점별 주간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2017 상반기 종합베스트셀러에서도 교보문고 25위, 예스24 14위, 인터파크도서 6위 등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변화하는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경영 서적도 관심을 끌었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은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주목받은 대표 서적이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는 독자들이 늘면서 미래 전망서인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17', 박영숙의 '세계미래보고서 2055'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문학계 거장들의 잇따른 신간 출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김영하는 지난달 25일 소설집 '오직 두 사람'을, 이외수는 지난달 30일 장편소설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를, 같은 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새 장편소설 '잠'을 내놨다. 10일에는 황석영이 자전적 에세이 '수인'을 출간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그 남자의 고양이
샘 칼다/ 이원열 옮김/ 북폴리오/ 1만5000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남성 중에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천재성과 유산에 고양이의 기여가 있었다. 예술가이자 고양이 집사인 저자 샘 칼다는 '남자와 고양이. 왜 고양이에 열광하는 남자는 안 돼?'라는 생각에서 '그 남자의 고양이'를 출간했다.

특히 저자는 배우 말런 브랜도가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그 모습에 매료돼 이번 책을 기획했다. 고양이는 길들여지기를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동물이다. 오늘날의 고양이는 거리의 뒷골목뿐만 아니라 인간의 침실을 지배하고, 현직 대통령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다.

역사 속 '캣맨'들도 고양이에 대해 순수하고 끈질긴 사랑으로 주목받았다. 아이작 뉴턴은 최초로 고양이 문을 발명했고,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윈스턴 처칠의 집에는 아직도 그들이 키웠던 고양이들의 후손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남성들이 많다. 저자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 말기를. 이 책 속에는 당신의 친구가 많다."



일자리 혁명 2030
박영숙/ 비즈니스북스/ 1만5000원

로봇이 고용돼 노동하고, 무인차가 도로를 달린다. 눈에 보이는 실물 화폐는 사라지고 디지털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이뤄진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현될 가까운 우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일자리 혁명 2030'의 저자 박영숙 교수는 기술 혁신으로 의식주가 무료화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미래에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만의 일'을 찾아야 하는 세상이 온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앞으로 15~20년간 산업 부문에서 전개될 기술의 발전 양상과 생활 및 사회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특히 저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산업으로 단연 인공지능(AI)을 꼽는다. AI 인력을 기르는 교육산업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로봇, 무인차, 디지털 통화, 증강현실, 바이오, 안보 등 7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한다. "하나의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生과 死의 길목에…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자 7명 집필
신약개발 스토리 소개·정책 제안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의 생과 사의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영역의 무게는 앞으로 무거워지고 중요성은 커져만 간다."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해-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테크를 중심으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중인 한국의 이야기를 담았다. 바이오·제약산업 전문 매체인 바이오스펙테이터 7명의 기자(이기형·천승현·장종원·서일·김성민·조정민·이은아)가 한국의 바이오 신약개발 과학기술을 소개한다.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나 단백질 세포를 원료로 만든 치료제다. 지금까지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병, 만성질환, 유전질환, 희소병은 물론 암 치료의 새로운 기회를 바이오 사이언스가 바탕이 된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어내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1980년대 시작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소개하고 세계적 제약기업들과 한국의 바이오테크는 어떻게 경쟁하고 협업하고 있는지,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해 난치병과 암을 잡으려 하는지 소개한다.

1970년대 중반 외국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1980년대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와 개발을 시작했고,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는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인슐린 제조를 위한 특허는 미국의 제넨텍 등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슐린 생산이 가능했다. 한국에서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처음 시작됐고, 이를 기점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작은 좋았지만 한국의 바이오 신약 개발의 걸림돌은 정부 정책에 있었다. 신약을 개발할 때 해당 신약이 어떤 환자에게 적절하게 효과를 나타낼지 사전 혹은 치료 과정에서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계의 화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외국의 사례가 없으면 "왜 외국에는 그런 신제품 사례가 없냐"는 질문을 내놓으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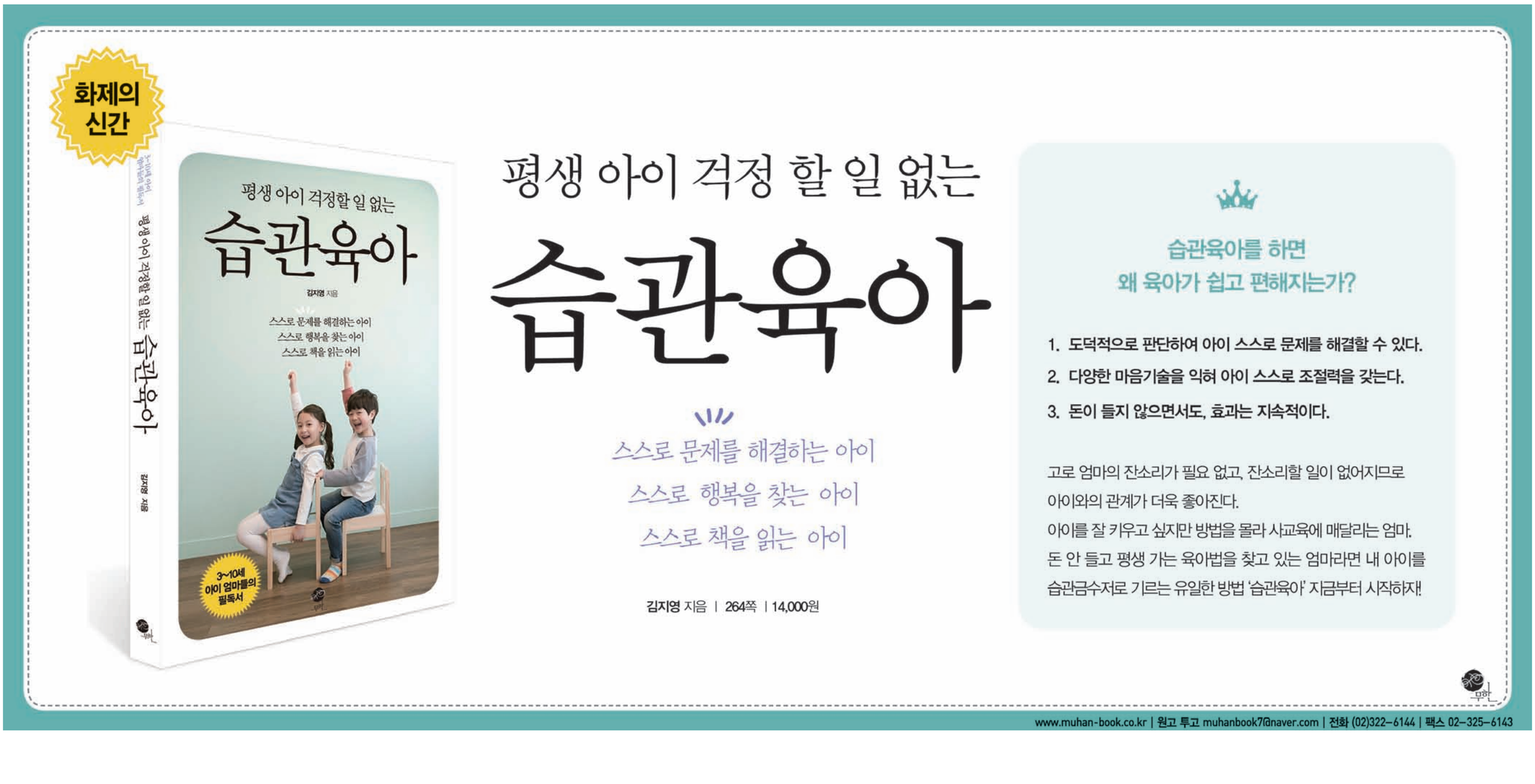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해
이기형 외 6명/ 바이오스펙테이터/ 2만5000원

제약기업이 허가를 받은 후에야 한국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때문에 말한다. "규제와 지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출발이 비슷했고 학계와 업계의 노력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손을 잡아 함께 도약할지, 발목을 잡아 외국 제약기업에 좋은 일만 시킬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 동안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제15회 미쟝센 단편영화제의 모습.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미쟝센 단편영화제' 신인감독 등용문 역할 톡톡

29일~내달 5일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점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인 '미쟝센 단편영화제'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한국 영화의 기초 자산인 단편영화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지난 16년 동안 국내 신인 영화감독의 등용문으로서 그 위상을 입증해왔다. 영화 '명량'의 김한민, '곡성'의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의 윤종빈 등 국내를 대표하는 스타 감독들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무엇보다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영화제를 통해 데뷔한 감독들이 다시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차세대 신진 감독들을 발굴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후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화 경영의 일환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후원해왔다. 올해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 동안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 1163편의 작품이 응모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응모작 중 70편이 경쟁부문 진출작으로 선정돼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들과 만난다.

초청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한국 멜로 드라마의 거장 '허진호 감독 단편 특별전'을 비롯해 국내 단편 다큐멘터리 작품을 상영하는 '(나), 카메라, 세계', 전년도 수상작 초청 상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복 아모레퍼시픽 홍보실장(상무)은 "기업의 후원이 미치기 어려운 비인기 분야인 단편영화의 활성화와 재능있는 신인 감독의 발굴에 기여한 점이 미쟝센 단편영화제의 존재 의의"라며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서 다양한 문화 경영에 앞장서온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한국 영화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車 제네시스, 차별화된 브랜드 감성 전한다

내달 9일까지 하남 스튜디오서 쇼케이스
첫 SUV 콘셉트카 'GV80' 국내 첫 선
내주부터 프리미엄 의전 '쇼퍼 서비스'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네시스(GENESIS)'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전하기 위해 고객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제네시스는 브랜드의 품격 있는 디자인과 그 속에 담긴 스토리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V80 콘셉트쇼케이스(GV80 CONCEPT SHOWCASE)'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달 9일까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제네시스는 첫 SUV(다목적스포츠용차량) 콘셉트카인 'GV80'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며 'G90 스페셜 에디션'과 국내 최초의 고성능 프리미엄 세단 'G80 SPORT'도 함께 전시된다.



제네시스는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인 EQ900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특별한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 '제네시스 쇼퍼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제공 현대차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누구나 차량을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한 고객에 한해 전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투어와 제네시스 라인업 EQ900(해외명 G90), G80, G80 SPORT의 시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디자인 철학에서부터 차량 디자인의 디테일, 감성 디자인 등에 대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제네시스 디자이너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브랜드 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제네시스는 이번 달부터 브랜드 플래그십 모델인 EQ900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특별한 프리미엄 의전 서비스 '제네시스 쇼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출발지부터 공항까지 또는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포트 쇼퍼 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특정 기념일에 '도어 투 도어'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셀레브레이션 쇼퍼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우수한 상품성과 디자인, 서비스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고객이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객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교체하고 사은품 받으세요"

금호타이어, 내달 8일까지 이벤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사고 선물도 가져 가세요."

금호타이어가 프로미엄 고성능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구매 고객을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관장 '홍삼 정화액', 리엔케이 화장품 세트,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의 바람막이 재킷 중 하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해 개발한 최상급 모델이다. 국내·외의 프리미엄 세단에 적합해 승차감과 정숙성,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창립 50주년 기념작으로 2010년에 출시됐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성능 타이어 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 큰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품에는 타이어의 신소재인 특수 실리카와 결합력이 극대화된 다기능성 고무를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승차감과 제동 기능이 개선됐다. 또한 4개의 와이드 그루브(타이어홈)를 장착해 배수성과 직진 주행성능을 향상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해 운전자에게 사계절 내내 변함없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최첨단 소음 감소 기술(KANT)로 소음도 잡았다. 소음 차단으로 중대형 운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정숙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



마제스티 솔루스 구매 이벤트.
사진제공 금호타이어

新車 최대 558만원 할인

한국지엠, 파격 혜택 ' 프로모션' 진행



쉐보레 '더 뉴 트랙스' 블레이드 에디션. 사진제공 한국지엠

한국지엠이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6월 한 달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과 올해 최대 구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종에 따라 최대 558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쉐보레 '올 뉴 크루즈'의 경우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특별할인과 최대 72개월의 할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크루즈를 첫차로 구입하는 고객은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캡티바(2016년형)의 경우 판매조건만 잘 활용하면 최대 558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팔라(2016년 생산)와 말리부, 올 뉴 크루즈는 각각 최대 447만 원, 311만 원, 284만 원의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쉐보레는 이달 출시한 2018년형 트랙스의 일부 모델에도 할인을 적용했다. 쉐보레가 이달 12일 출시한 2018년형 트랙스에는 수동변속기 모델이 추가돼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 모델은 자동변속기 모델 대비 160만 원 저렴한 1695만 원부터 가격이 책정됐다. 이번 트랙스에는 프리미어(Premier) 트림을 신설했고, 고객 선호도에 따른 패키지 구성으로 1.4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과1.6리터 디젤 모델의 최고 가격을 각각 29만 원 인하하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의 공격적인 신차 출시 등 더욱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초강수 카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주택에너지 효율화·미얀마 실생활 도움주는 사회공헌…

지역민과 가치 네트워크 만드는 현대제철

"고객·사회와 함께 만드는 가치 네트워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제철의 올해 경영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은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사회공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 도움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수혜 대상이 자립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시공 과정에서 집수리 자활 공동체 및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집수리를 통해 연간 가구당 1.3톤의 CO_2배출을 줄이는 등 복지·환경·고용 등 3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글로벌한 가치 네트워크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자신들이 그린 벽화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2014년부터 미얀마 따웅비라이구 내 총 6개 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식수저장탱크, 학교 화장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벽화 그리기, 위생교육 전파 등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캐피탈 '車 이용·개인리스' 프로모션

할부보다 최고 50% 저렴… 아반떼 월 17만원에 이용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이용프로그램'과 '개인리스'에 대한 6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이용프로그램'과 '개인리스' 상품은 차량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뀌면서, 저렴한 월 납입금과 극대화된 편의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이용프로그램'에 특별한 가격 할인 혜택을 더한 6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0대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투싼과 기아차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인기 차종을 할부 대비 최고 50%가량 저렴한 월 납입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절감과 LPG 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 절감, 7가지 프리미엄 혜택까지 더해져 경제성과 편의성 모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 2795만 원인 싼타페를 48개월간 이용 시, 월 납입금은 34만 원으로 할부보다 월 28만 원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싼타페 외에도 현대자동차 쏘나타는 월 30만 원, 아반떼는 월 23만 원, 투싼은 월 32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는 월 32만 원, 쏘렌토는 월 36만 원, K5는 월 30만 원으로 할부 대비 절반에 가까운 월 납입금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상담 후 계약한 고객에게는 총 3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전면 선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은 개인리스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번 개인리스 6월 프로모션을 통하면 현대차의 스테디셀러 아반떼를 월 1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아차 모닝은 월 1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개인리스 6월 프로모션은 각 차종별 20대 한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셀프 계약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이용 프로그램과 개인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류 없이 견적 산출부터 계약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복잡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절차가 없어 쉽고 빠르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이용프그램'과 '개인리스'에 대한 6월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을 통하면 현대차의 아반떼를 월 1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아차 모닝은 월 1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파운트 챔피온 로보어드바이저 랩'

AI 활용 국내외 자산 분산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투자자산을 재구성(리밸런싱)하는 '유진-파운트 챔피온 로보어드바이저 랩'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파운트가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한 인공지능이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군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관리한다. 또한, 고객의 위험 성향에 맞는 목표 변동성을 설정해 그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조합을 제공,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로 시장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최근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테스트베드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파운트는 국내 3대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짐 로저스를 비롯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진-파운트 챔피언 로보어드바이저 랩의 최소 투자금액은 1000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추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변액건강종신보험Ⅱ 건강이야말로…'

'중대한' 단서 뺀 CI보험… 중증갑상선·男유방암도 보장

미래에셋생명은 중증갑상선암과 남성유방암도 보장하는 '변액건강종신보험Ⅱ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이하 '변액건강종신보험Ⅱ')'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CI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GI종신보험으로 설계됐다.

기존 일반 CI보험은 3대 질병을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형태로 구분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었다. 변액건강종신보험Ⅱ는 3대 질병 보장에서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12대 질병 진단 및 수술 시 가입금액의 100%까지 선지급 진단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선지급 진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도 일반암으로 재분류해 주계약 선지급 보장에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저금리, 고령화 기조 속에 효과적으로 질병 치료자금 및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사망 부분 연금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12대 질병에 대한 선지급 진단금을 종신토록 보장하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선지급 진단금 보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총 31종의 다양한 펀드로 구성돼 있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MVP' 펀드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1년에 4회 리밸런싱하며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기별 펀드 선택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자투자신탁'

高배당 주식에 70%, 채권에 30% 투자

메리츠종금증권은 국내외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수익을 쌓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펀드를 추천했다.

국내 배당주펀드인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증권은 70%를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우선주(배당주)의 꾸준한 배당수익과 콜매도 프리미엄, 채권(국고채·통안채) 이자 수익이 더해져 지수 및 주가 하락 시 일정 수준 손실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식 자본소득과 옵션 수익 부분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도 가능하다.

이 펀드는 국내 주식 가운데 우선주 등 배당 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추가로 시가총액, 배당 안정성, 투자 종목의 유동성 등을 고려한다. 우선주 선정 기준은 시가배당률 2% 이상에서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인 종목으로 선별한다. 배당주는 과거 3년 주당 현금배당금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한다. 펀드 총 보수는 연 1.48%(클래스C 기준) 수준이며, 환매수수료는 없다.



모바일 '삼성페이 롯데카드' 출시 이벤트

롯데카드는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페이 롯데카드'를 최근 출시했다.

이에 따른 캐시백 이벤트를 이번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삼성페이 롯데카드는 삼성페이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물없는 모바일 앱카드로, 삼성페이 전용 특화카드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10%, 70만 원 이상이면 2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할인 한도는 각각 8000원, 1만4000원이다.

또한 고객이 L.POINT 외식업종 제휴사(롯데리아·엔제리너스·TGIF·나뚜루 크리스피크림도넛·보네스빼)에서 해당 카드 이용 시 지난달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0%(월 8000원 한도), 70만 원 이상이면 20%(월 1만4000원 한도)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롯데닷컴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캐시백을 해준다. 또한 세븐일레븐, 엔제리너스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을 각각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여,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간소화된 절차와 편리함을 추구해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롯데카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과 편의성을 담은 삼성페이 롯데카드는 삼성페이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이 카드로 이번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롯데마트(온·오프라인)

SC제일은행 '초이스외화보통예금'

신규 가입고객 1% 특별금리 제공

SC제일은행은 올해 말까지 미화 1000달러 이상 '초이스외화보통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 1.0%(세전 기준)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금리를 적용받으려면 SC은행에 미국 달러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1000달러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을 신규 개설하고 미화 1000달러 이상을 환전해 예치하면 된다.

특별금리는 가입 후 6개월 동안 제공되며, 기본 연 0.1%의 금리에 추가금리 연 0.9%가 더해져 총 연 1.0%의 금리를 받게 된다. 다만 은행 사정에 따라 기간 중 금리가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미화로 보통 통장에 예치하면 연 0.01~0.0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에 비해 6개월간 제공되는 1.0% 특별금리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게 SC은행의 설명이다.

초이스외화예금은 높은 금리뿐 아니라,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면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수수료를 1회 면제해 주고, 최근 2개월간 평잔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평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수수료 또는 외화현찰 수수료를 1회 면제해 준다. 또 SC은행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외화 매매 거래를 할 경우 90%의 환율 우대도 제공한다.



개인연금펀드 10조 돌파…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개인연금펀드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연금펀드는 10조3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조911억 원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약 1조40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세제 혜택 등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졌다. 2013년 3월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2012년 말 171개였던 개인연금펀드는 이날 현재 773개까지 증가했다.

개별 운용사 중 수탁액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규모가 2조3133억 원으로 올 들어 509억 원이 늘었다. 연금저축펀드 1조8995억 원, 개인연금펀드 4138억 원을 합산한 결과다. 시장점유율은 각각 21%, 34%에 달한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 덕분에 큰 폭으로 성장한 듯하다"며 "개인연금펀드는 137개로 시장 전체(773개) 중 가장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성과가 가장 좋은 개인연금펀드는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펀드'로 수익률이 35.44%에 달했다. 이 펀드는 성장성을 겸비한 고배당주에 투자한다.

2위는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펀드'(32.94%), 3위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펀드'(30.65%)가 차지했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사시장춘(四時長春) 백세청풍(百世淸風)
PART1. 노년기 청춘을 다시 맞이하는 법 서울아산병원 김성윤 교수
PART2. 장수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속 원칙
PART3. 백세시대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법
PART4.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하는,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하혜연 LA 객원기자
PART5. 백세인들이 전하는 장수 비결 5가지 이태문 동경통신원
PART6.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로 알아본 백세시대 건강 트렌드

문화공간
달동네 오아시스, 자만벽화마을
옛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어지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른바 '핫'한 도시로 거듭난 전라북도 전주시. 살 뽀얀 아가씨들의 화려한 한복 차림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곳의 매력이다. 떠들썩, 사람 넘쳐나는 한옥마을을 지나 '도란도란 시나브로길'이란 표지판이 서 있는 구름다리 앞에 다다른다. 그 건너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예술가들의 온기와 사람 사는 향기 그윽한 자만벽화마을이 있다.

선라보가 만난 사람

"심신이 편안해야 장수하지요"
삶의 고수 김세환, 변치 않는 삶에 대해 말하다

영화 〈돌아온다〉 주인공 배우 김유석
이 남자, 당신 인생에 스며들다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내면의 자화상
소소한 인생, 특별하게 찍는 김경수 사진작가

6월의 맛
분위기가 흐르는 캠핑 바비큐 맛집
초여름, 캠핑하기 알맞은 시기다. 캠핑의 꽃은 단연 바비큐! 같은 고기라도 야외에서 불을 피워 구운 고기는 더 맛있게 느껴진다. 찌르르르 산벌레 울음소리, 타닥타닥 피어오르는 모닥불, 살랑살랑 불어오는 은은한 바람이 천연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캠핑의 낭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모노캠프'를 찾아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음색의 프리마돈나 '김성은'
김성은이 공연할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무대 앞뒤에서 "내가 스텔라의 남편이요"라고 외치는 남자가 있다. 바로 그녀의 이탈리아 남편 카를로다. 대기실에서는 이탈리아어로 예쁘다는 의미의 "Bella"를 연발한다. 목소리만큼 아름답고 특별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들여다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이 好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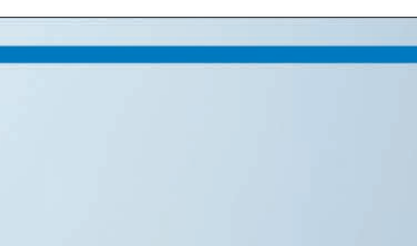
올들어 91건…7년 만에 최대 전망
신사업·자금 기대에 주가 오르지만
전문가들 "시장에는 부정적 신호"
상장 후 '성장'서 '투자회수'로 선회
장기적 사업 추진 성장동력 사라져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신사업 기대감 등으로 주가에 호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일 확률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2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건수는 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4건)에 비해 8.4% 늘어난 수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최대주주 변경 공시건수는 200건을 가뿐히 넘기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휩싸였던 2010년(24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그간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건수는 2014년 95건, 2015년 157건, 2016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공시 건수
(단위: 건) ※ 출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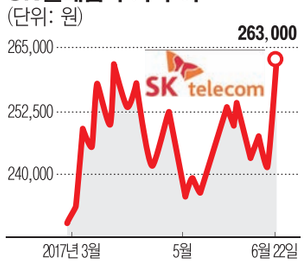
통상 최대주주가 바뀌면 신규자금 유입이나 신규사업 확대 기대감을 반영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오는 통신장비 업체 감마누의 경우 지난 관련 내용을 공시한 12일 이후로 8거래일간 197.65%(8920원→2만6550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서화정보통신과 텔콘 등 주가는 대부분 이튿날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아진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아졌다는 것은 결국 대주주의 '엑시트(투자회수)'가 많아졌다는 얘기"라며 "코스닥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당초 목적인 '상장 후 성장시장'에서 '상장 후 회수시장'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징조"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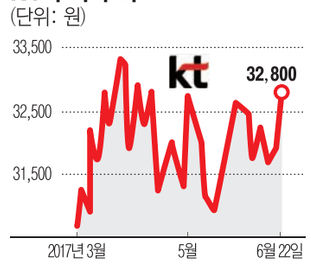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 건수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주주의 이탈 이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할 세력이 사라져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 394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02곳(51.3%)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배임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매각과 관련한 시장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기존 대주주가 1% 이상의 주식을 대량판매하는 경우, IPO(기업공개)에 준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왜 파는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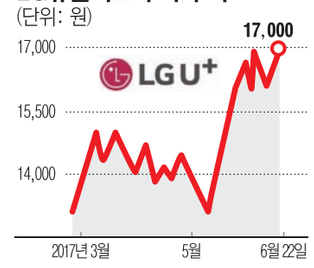
SK텔레콤 주가 추이
(단위: 원)



KT 주가 추이
(단위: 원)



LG유플러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이통사 반발하지만…이통株 일단 和色

쟁점이던 '기본료 폐지' 무산에 1~3%대 상승…제4이통 관련 종목도 급등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SK텔레콤은 22일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장중 주가는 26만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3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KT(1.86%)도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LG유플러스(1.19%)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통3사의 주가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후 동반 상승했다.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최대 4조6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본료 폐지는 정작 제외됐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산 금액이 3조6000억 원이라는 점을 볼 때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우려보다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근책'으로 내놓은 제4이동통신 진입규제 완화도 관련 종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세종텔레콤은 이날 29.40% 급등하며 상한가 거래됐고, 에이스테크(2.46%)는 LTE 핵심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10% 넘게 급등했다. 제4이통 컨소시엄 참여 전력이 있는 쏠리드(2.23%) 역시 상승 마감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요금 인하안이 확정되면 통신업은 단기 주가하락 이후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규제 리스크를 감안해도 저평가된 통신업종의 투자 매력과 SK텔레콤의 커머스 사업 구조조정 및 인적분할 가능성, KT의 부동산 가치 현실화 등 투자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타깃데이트펀드〉

불붙은 TDF 시장…KB자산·신한BNPP 출사표

금융지주 은행 리테일망 앞세워 내달 출격
농협 계열 NH아문디자산도 출시 검토 중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파전이었던 국내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시장 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를 등에 업은 KB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후발주자들이 내달 출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다음 달 세계 최대 상장지수펀드(ETF) 수탁고를 보유한 뱅가드와 손잡고 TDF 상품을 선보인다. 작년 10월께 상품 개발 논의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뱅가드의 ETF 상품들에 투자해 타사 대비 운용보수를 저렴하게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뱅가드가 운용사를 선정할 때 KB금융지주가 뒤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국내 최대 리테일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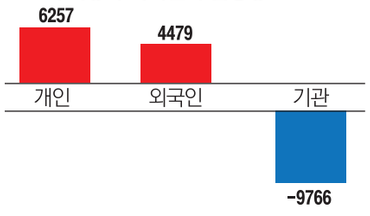
실제 KB국민은행 영업지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재 1062곳으로 농협은행(1162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신한BNP파리바운용 역시 계열사인 MAS의 리서치 분석을 기반으로 내달 TDF 상품을 선보인다. 재간접펀드가 아닌 해당 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이 직접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지점수 3위의 신한은행(898곳)이 지주 계열사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 외에도 농협지주 계열의 NH아문디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펀드상품이란 점에서 기본적으로 리테일망이 크다는 건 어느 정도 경쟁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연금펀드라는 성격상 당장 리테일망 확보보다 법인고객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TDF는 투자자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을 해주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로 퇴직연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편의를 높여주는 자동투자옵션(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경우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위	삼성전자	3910	6위	삼성화재	289
2위	현대중공업	1655	7위	롯데케미칼	286
3위	우리은행	713	8위	LG	258
4위	삼성SDI	431	9위	LG생활건강	223
5위	LG유플러스	328	10위	삼성전기	222

外人, 경기회복 기대감에 4479억 순매수로 전환

이주의 수급동향

삼성전자 3910억·현대重 1655억어치 사들여
유가·원자재 하락 철강금속·화학은 차익실현

코스피 지수의 고점 부담에 차익실현 움직임을 나타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들어 다시 국내 증시를 사들였다. 국내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22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총 4479억 원을 사들였다. 환율과 국제유가 흐름이 불리했던 데다 중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 편입 등 이슈를 고려하면 수급이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평가다. 반면, 기관은 9766억 원을 순매도하며 보유물량을 처분했다. 개인은 6257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이었다. 이들 종목의 순매수액은 각각 3910억 원과 1655억 원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713억 원) △삼성SDI(431억 원) △LG유플러스(328억 원) △삼성화재(289억 원) △롯데케미칼(286억 원) 등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다.

반면 가격부담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강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1597억 원)였다. 이어 △엔씨소프트(-1066억 원) △삼성전자우(-398억 원) △한국항공우주(-266억 원) △S-Oil(-258억 원) 등을 많이 팔았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 대해 고른 매수가 이뤄진 흐름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업종별 수급을 보면 한국의 경기가 좋아질 때 흐름을 함께하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업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철강금속,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의식해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은 △SK텔레콤(749억 원) △삼성전기(449억 원) △넷마블게임즈(406억 원) △우리은행(302억 원) △KCC(271억 원) △SK(208억 원) △삼성물산(186억 원) △삼성에스디에스(18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165억 원) △KT(154억 원) 등 주로 통신주와 삼성그룹 계열사를 집중 매수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국특수형강 채권단, 매각위해 "회생 종결"

주채권자 유암코, M&A 추진 요청 불발에 초강수
종결 후 보유지분 의결권 살아나면 지분 매각 의도
특수형강 경영진 "조기 종결에 당황…입장정리 중"

법정관리(기업회생)가 진행 중인 한국특수형강의 채권단이 회사의 매각을 위해 회생 조기종결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채권자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특수형강의 주채권자인 유암코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을 위한 의견서'를 19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유암코가 법원에 낸 M&A 추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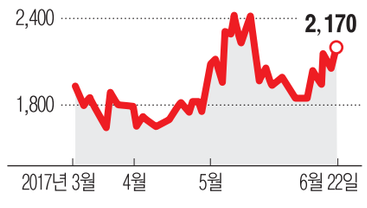
법원 관계자는 "회사 관리인과 의견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암코는 한국특수형강의 주채권자이자 최대주주다. 지난해 9월 한국특수형강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서 유암코의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됐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아닌 채권자가 조기종결을 신청하는 일이 흔치 않지만 유암코는 단순 채권자가 아닌 특수한 위치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회생 종결 후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살아나면 M&A 등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4월 말 유암코는 한국특수형강의 영업환경상 당장 내년부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M&A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기했다. 회생계획안에서 목표로 잡은 매출·영업익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채무 변제를 위해 계획 중인 공장부지 등 자산 매각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대 서류를 제출했다. 제1차 연도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했고 올해 영업실적도 양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M&A 요청이 일부 투자자의 수익 극대화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국특수형강 주가 추이
(단위: 원)



당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당장 M&A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를 유암코에 보냈다. 이에 유암코는 회사가 변경회생을 통한 M&A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화돼 있다면 회생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특수형강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채권단의 조기종결 신청에 당황한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회생계획 인가 후 만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생이 조기종결되고 유암코가 매각을 추진하면 현 경영진은 회사와 결별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유암코 외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 역시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의견 조회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원 요청 시 회사의 입장과 현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정상화에 이로운 방향으로 조기 종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탈피는 법원과 채권단이 앞서 조율한다"며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이지만, 채권단이 조기회생 종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런 사전 조율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법정관리를 정해진 기간(10년)보다 일찍 마치는 종결 절차는 회생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회생절차 폐지와는 달리 종결은 채권자 이익 감소가 없어 채권자집회 등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통상 법정관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채무회사나 매년 회사 상황을 평가하는 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조기종결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토 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다운 기자 gamja@

현대일렉트릭 脫원전 수혜株 맞나?

19일 반짝 상승 후 이틀연속 하락
풍력에너지 매출 비중 0.5% 그쳐
원자력 관련 사업 참여도 발목

새 정부가 원전 폐쇄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치솟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뛰어든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미하다. 아직 관련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데다, 원전 관련 사업까지 함께 벌이고 있는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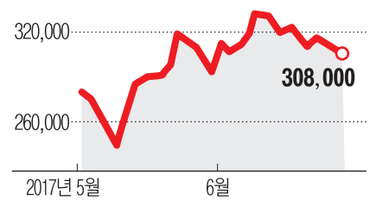
22일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전일 대비 500원(0.16%) 오른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9일 5000원 반짝 상승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양일간 하락 폭은 1만원에 달한다.

사흘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는 거셌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면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웅진에너지가 12.7% 치솟았고, 씨에스윈드(5.37%), 신성이엔지(3.35) 등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니슨은 17.57% 치솟았고, 이튿날 에스에너지는 8.85% 급등했다. 또 다른 풍력 관련주인 동국S&C(7.70%), 태웅(6.10%)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일렉트릭 주가 추이
(단위: 원)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다소 밋밋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한 회사로 전력 부문 발전에서 사업자로 이어지게 하는 기기, 즉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모터 등을 주로 제작한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해상풍력 및 태양광 ESS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실제 통영 국도 마이크로그리드, 태백 창죽 ESS 등의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 관련 사업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에서 풍력 에너지 관련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태양광 관련 매출은 없다.

게다가 원전 관련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원전 해체에 따른 리스크로 지목된다. 이 회사의 작년 원자력 관련 매출은 전체의 1.7%였다.

회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비한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원전 폐쇄와 관련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윈스 5G 신제품 출시 눈앞

100기가 속도 네트워크 대응 보안

네트워크 장비 보안 전문업체 윈스가 4이동통신 사업자 시대를 맞아 5G 신제품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23일 윈스는 새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과 다음 세대 인터넷 등에 대비한 네트워크 보안제품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100기가(100G)의 네트워크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번 제품 개발 완성도는 약 95%로 최종 오류를 검출하면 양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장비 사업 분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세종텔레콤, 에이스테크, 기산텔레콤, 콤텍시스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제품 개발은 이런 흐름과 5G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준비된 것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브이원텍 "압흔 검사장비 분야 2차전지로 확대"

김선중 대표 IPO 간담회서
"솔라 셀·의료장비까지 적용"
中 시장 점유율 64%로 1위
27일 수요예측 후 내달 청약



"글로벌압흔 검사장비 사업을 기반으로 2차전지, 솔라 셀, 의료 장비까지 적용 시장을 확장할 것이다."

김선중〈사진〉 브이원텍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설립된 브이원텍은 머신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다. 머신비전은 사람 눈의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개발해 장비에 탑재하는 기술이다. 브이원텍의 주력 품목은 디스플레이 압흔 검사 장비다. 압흔이란 압착의 흔적을 말한다.

압흔 검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과 그 위로 조립한 연성회로기판(FPCB) 등이 충분히 압착됐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를 통해 불량을 줄이는 것이 압흔 검사 장비의 역할이다.

브이원텍은 국내 대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중국 시장도 진출해서 현지 시장 점유율은 64%로 1위다.

브이원텍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07.14%, 263.82% 증가한 245억 원과 89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92%, 396.78% 늘어난 97억 원과 43억 원을 기록했다.

브이원텍은 자체 개발한 광학 및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머신 비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분야까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현재 가장 가시화된 사업은 2차전지 검사장비 분야다. 2차 전지는 안전성에 있어 배열 정확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머신 비전 검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사업 분야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화돼 내년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솔라(Solar)검사 장비 및 3D 스캐너 의료장비 등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의료 산업체에 특화된 3D 스캐너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3차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브이원텍의 공모 희망가는 1만5200원에서 1만7700원이다. 희망밴드에 따른 공모예정 금액은 278억 원에서 324억 원 사이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모인 공모자금은 생산능력(Capa) 증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과 연구개발비, 중국투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해서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상장일은 7월 중순으로 계획 중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캐피탈에 매각설' 홍역치른 AJ렌터카

인수설 보도에 장중 8.91% 급등
'사실무근' 해명 후 8.53% 떨어져

AJ렌터카의 주가가 현대캐피탈의 인수설에 급등락했다. 회사 측은 해명 공시를 통해 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주가는 전일 대비 8% 떨어졌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J렌터카는 21일 "AJ렌터카의 현대차그룹 매각추진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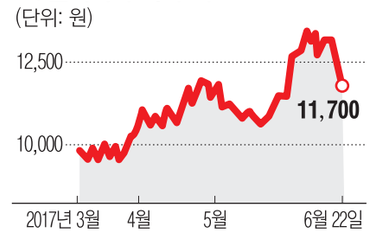
이날 한 언론은 현대캐피탈이 AJ렌터카를 브리이빗 딜 방식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장 초반 AJ렌터카는 전일 대비 6.02% 상승하며 급등세로 출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장 중 한때 주가가 8.91%까지 치솟기도 했다.

AJ렌터카가 매각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시를 낸 후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AJ렌터카는 전일 대비 8.53%(1100원) 하락한 1만1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회사 관계자는 "증시 변동이 심화되고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래소 측의 요청이 있어 해명공시를 빠르게 냈다"며 "매각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AJ렌터카의 매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주캐피탈이 우리은행으로 매각되면서 렌터카 업계 3위인 AJ렌터카의 매각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3월에도 AJ렌터카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인수 후보로 SK네트웍스, 현대차, 한국타이어 등이 주요 원매자로 거론된 바 있다.

AJ렌터카 주가 추이
(단위: 원)



AJ렌터카 측은 시장에서 매각 추진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것은 대주주인 AJ네트웍스에 달려 있겠지만, AJ네트웍스에 확인한 결과 현재 매각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AJ렌터카는 아주그룹 창업주의 3남인 문덕영 부회장이 AJ그룹으로 계열 분리한 후 주력으로 부상한 회사다. AJ그룹은 현재 AJ네트웍스를 통해 AJ렌터카 지분 39.8%를 보유하고 있다. AJ렌터카는 지난해 매출액 6476억 원, 영업이익 327억 원을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우엠스, 베트남 법인에 130만 달러 출자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양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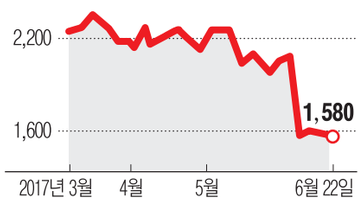
스마트폰 케이스 및 생체인식 모듈 전문업체 삼우엠스가 베트남 법인에 자금을 출자해 하반기 BTP(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대량생산을 준비한다.

삼우엠스는 전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베트남 생산 법인(SamwooEms Vina Co., Ltd.)에 약 130만 달러의 자금을 출자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우엠스는 주력 사업인 휴대폰 케이스 사출 외에 모기업 크루셜텍의 대표 제품인 BTP 전공정(반도체 패키징 프로세스)을 담당하고 있다. BTP 사업은 2015년 이후 삼우엠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해 왔고, 지난해에는 전체 공정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원가 경쟁력 및 생산성도 한층 높였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말부터 다소 주춤했던 중국 주요 고객사들의 BTP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삼우엠스 베트남 법인에 하반기 BTP 대량 공급을 대비한 운영자금과 원자재 수급 비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삼우엠스 주가 추이
(단위: 원)



한편, 크루셜텍도 지난 1일 베트남 생산기지의 CoT(세라믹 소재 BTP) 및 GoT(글라스 소재 BTP) 양산 설비 확충에 200만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고객사 대응을 위해 삼우엠스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금호에이치티, 도시바와 손잡고 車 조명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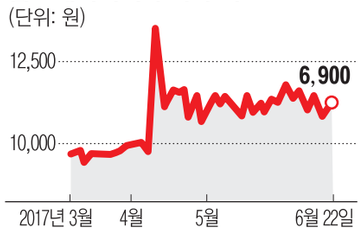
금호에이치티가 SK가 인수하는 도시바와 합작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에도 2대주주로서 이번 도시바 인수합병에 큰 영향 없이 지속적인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금호에이치티 관계자는 "현 2대주주인 도시바 라이팅과 합작법인으로 출발했다"며 "합작법인 설립 때 보유한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바와 매출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며 "자동차 백열전구를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에이치티는 금호전기와 일본의 HARISON TOSHIBA LIGHTING(현 TOSHIBA LIGHTING & TECHNOLOGY)와의 합작으로 1988년 설립됐다. 이후 현 금호에이치티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에도 합작설립 주체인 도시바와는 지속적인 사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 2대주주(8.48%)인 도시바 라이팅은 도시바와 계열분리가 돼 있다가 다시 합병한 상태다.

금호에이치티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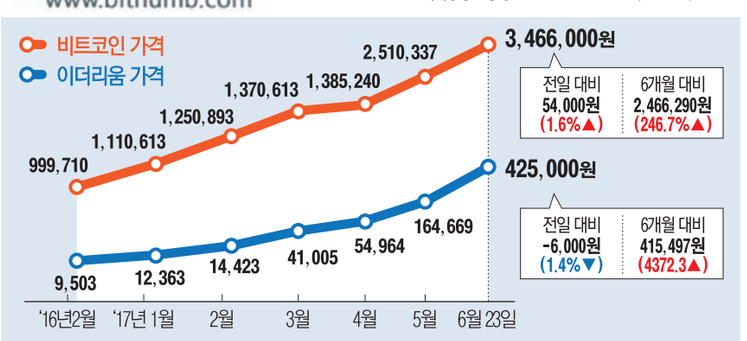
금호에이치티는 자동차용 조명장치 백열전구 및 LED모듈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도시바의 설비와 기술을 도입해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때 인수가 거론되던 마그네티 마렐리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장차 관련주로도 꼽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6월 23일, 08:00, KST)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 모두의 에어컨 _ 5



미 용 실 의 무 풍 이 야 기

시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시는데
머리카락 날릴까 봐 에어컨도 못 트셨어요
무풍에어컨으로 바꿔드리고 나서는
바람 없이 시원하게 일하시고
손님들도 기분 좋게 머리하고 가시니까
진작 바꿔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에어컨 사연 콘테스트 중 조경미님의 이야기-





모델명 : AR06M5170HNQ

모델명 : AF25M9970BFR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삼성 무풍에어컨
우 리 모 두 의 에 어 컨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소개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풍냉방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냉방 운전을 하고,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기능을 선택하세요. *무풍청정, 무풍제습, 무풍냉방은 무풍모드, 스마트쾌적 운전 시에만 작동됩니다.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차가운 공기흐름에 의한 원하지 않는 몸의 냉각)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하며 국제공인기관 인터텍(Intertek) 평가 결과 쾌적 기준 만족

SAMSUNG